

| | |
|----------|-------|
| 관리 번호 | P1-24 |
|----------|-------|

| |
|----|
| 32 |
| 40 |

| |
|---|
| <p>남북대화관련 쌍방서신 및 직통전화통지문 〈1990. 1 ~ 1990. 12〉</p> |
|---|

1991. 1

통 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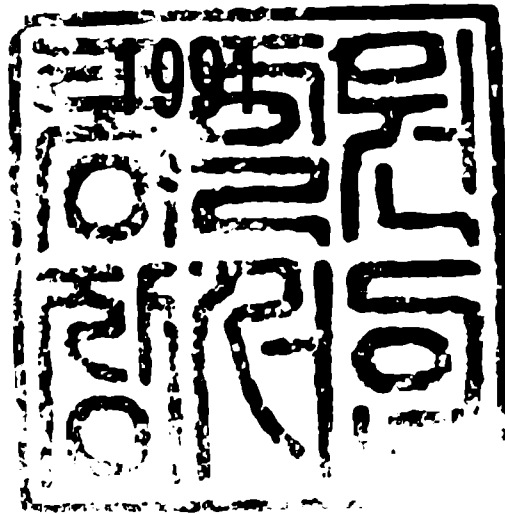


관리
번호 91-24

32
40

남북대화관련
쌍방서신 및 직통전화통지문

〈 1990. 1 ~ 1990. 12 〉



통 일 원
(남 북 대 화 사 무 국)

목 차

| | |
|------------------------------------|-----|
| I . 남북대화 관련 쌍방서신 | 3 |
| 1 .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 7 |
| 2 . 범민족대회 | 41 |
| 3 . IPU 총회 남북단일대표단 구성·참가 | 45 |
| 4 . 남북적십자회담 | 47 |
| 5 . 한필성·한필화 상봉 관련 | 49 |
| 6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및 범민족통일음악회 | 61 |
| 7 . 기 타 | 67 |
| II . 남북직통전화 통지문 | 77 |
| 1 .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81 |
| 2 . 남북고위급회담(예비회담) | 100 |
| 3 .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 154 |
| 4 . 민족대교류 및 범민족대회 | 184 |
| 5 . 남북체육회담 | 229 |
| 6 . 남북적십자회담 | 247 |
| 7 . 한필성 한필화 상봉 관련 | 261 |
| 8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및 범민족통일음악회 | 270 |
| 9 . 기 타 | 277 |

I. 남북대화 관련 쌍방서신

쌍방 서신 교환 실적

| 총회 대표단 참가 | 적십자회담 | 한 한 상 | 필 필 상 | 성 화 봉 | 통일음악회 | 기 | | 타 | | 계 |
|-----------------|-------|-------------|-------------|-------------|-------|----------------|-----------------|----------------|----------------|--------------|
| | | | | | | 방북구속자 위문단파견 | 북경대회공동 응원단구성 | 연 · 고 민족해방세 | 범민족통일 교육자대회 | |
| | 1 | | 2 | | 1 | | | | | 7 |
| | | | 2 | | 2 | 1 (방송공개) | 1 (방송공개) | 1 (방송공개) | 1 (방송공개) | 16 (방송공개) |
| | 1 | | 4 | | 3 | 1 | 1 | 1 | 1 | 23 |

1.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가. 북한 정무원 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1차 대남편지

(90. 1.13 접수)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정의당 총재

로 태 우 귀 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반영한 새로운 구국방안을 천명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각 정당 대표들은 1월 9일 평양에서 연합회의를 열고 이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남조선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습니다.

나는 위임에 의하여 연합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귀하에게 보내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 리 연 형 북

1990년 1월 9일

남조선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 나라가 분열된지도 벌써 45년을 헤아리

고 방국과 분렬로 이어진 재난에 찬 20세기도 이제는 마지막년대에 들어섰습니다.

..

민족분렬의 고통을 안은채 또 해를 보내고 90년대에 들어선 우리 겨레는 아직도 가늠할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우려하며 참으로 단절의 아픔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있는바와 같이 겨레의 통일열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분렬의 장벽이 두터워지고 대결과 불신의 심연이 깊어지고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북남사이에 대화는 20년가까이 거둬지고 있으나 이렇다 할 결실을 보지 못한채 공전만을 계속하고있는것이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랭혹한 현실앞에서 만일 우리가 난국타개를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다면 통일의 길은 언제가도 열리지 못할것이며 분렬로 인한 겨레의 불행과 고통은 기약없이 지속될것입니다.

우리는 반세기를 바라보는 분렬의 역사를 더이상 끌지말아야 하며 90년대에는 반드시 통일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엄숙한 요청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획기적인 구국대책을 천명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시였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념원과 의사에 맞게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한 노력의 또하나의 뚜렷한 표시이며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참으로 중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 획기적인 구국대책을 실현하는데 분렬로 인한 거래의 고통을
가시고 온 민족의 힘을 합쳐 통일의 물파구를 여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당신들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최근시기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기
운은 전례없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서로 갈라져사는 가족, 친척들은 혈육들사이의 상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인민들
은 분렬의 장벽을 넘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고 대화할것을 주장하면서
통일의 문을 힘있게 두드리고있습니다.

수십년동안 억눌려온 통일열기의 이 거세찬 분출은 누구에 의해서도 억
제되지 말아야 하며 억제될수도 없는것입니다.

거래의 뜨거운 열망은 지체없이 상봉의 기쁨으로 바뀌여져야 하며 자유
로운 래왕과 접촉의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분렬의 장벽을 마르고 통일의 문을 여는 첫
조치로서 우선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쌓아놓은 철근콘크리트장벽부터 세
거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질러 동서로 련연히 뻗어있는 콘크리트장벽은 분렬과
대결의 상징이며 북과 남을 격폐시키는 차단물입니다.

나라안에 군사분계선이 있는것만 하여도 가슴아픈 일인데 인공적으로 쌓
아놓은 장벽까지 있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콘크리트장벽을 허문다면 우리측 지역에 설치되여 있는
철조망을 즉시 철거할것입니다.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은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자유래왕은 문자 그대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제한없는 것으로 되어야 하며 북과 남의 개방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치는 전면적인 것으로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은 의심할바없이 북과 남으로 흩어져사는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이며 각당, 각파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호상 이해와 신뢰의 기초우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조국통일위업을 전민족적위업으로 힘있게 떠밀고 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수십년동안 굳어져온 분렬의 장벽을 제거하고 통일의 문을 여는 이 중대한 력사적조치는 북남당국사이에 다룰 행정상의 문제이기전에 쌍방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단안에 의해 실현되여야 할 정치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조선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협상을 호소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외인민들은 조선의 정치인들의 일거일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획기적인 구국대책에 대한 남조선정치인들의 태도를 지켜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당국이나 여야를 불문하고 남조선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우리와 함께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할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도 한결같이 통일을 바란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 분단의 장벽을 개방한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한만큼 우리 나라에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여는데 반대할 조건이 없을것이며 이 문제를 협의하는데 주저할 리유도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

회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이 협상회의의 소집을 위하여 1990년 2월초순에 판문점에서 예비접촉을 가질것을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예비접촉에는 북과 남의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이 참가하되 인원수는 북과 남에서 각기 5명 정도로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1990년대를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년대로 되게 하려는 우리의 구국세의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의 연합회의

1990년 1월 9일

평 양

(※ 북측은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동인날짜에 강영훈 국무총리, 평화민주당 김대중총재, 통일민주당 김영삼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총재에게 보내왔음.)

나.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1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귀하

나는 귀하의 1월 9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높고 국제정세도 완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우리는 현재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회담들이 하루속히 타결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부가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남북자유왕래와 사회개방 문제에 대해 귀측이 관심을 표명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방식으로 비현실적인 「협상회의」를 다시 제기하였고 특히 우리측에서는 있지도 않는 이른바 콘크리트장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의 장애가 마치 우리측에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환영하면서, 이 문제는 남북당국 특히 최고책임자간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절과 대결로 점철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민족화합과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려면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통한 다각적 교류와 협력의 실시가 필수적 과제라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남북간에 편지 한통, 전화 한통화 주고받지 못하며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최소한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행·통신 그리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은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 등 실질적 조치도 아울러 취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올해 「팀스피리트」훈련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기로 한 우리측 입장에 귀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귀측이 제기한 「협상회의」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남북의 당국 및 정당수뇌들이 참가하는 회의체라 할지라도 본질상 귀측이 종래 주장해온 정치협상회의나 남북연석회의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분단현실을 볼 때 남북 사이에는 쌍방 당국이 직접 만나 협의·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각기의 고유한 권능과 책임을 도외시 하면서 무원칙하게 하나의 협상마당에서 혼합시키려는 것은 남북간의 세반 문제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진심으로 자유왕래와 선변개방을 바란다면 기존대화에 성실해야 함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북 사이에 닫혀진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온 겨레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하나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는 민족공동체가 이 대망의 90년대에는 기필코 회복·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90년 2월 1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다. 북한 정무원 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2 차 대남편지

(90. 2.15 접수)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로 태 우 귀 하

나는 오늘 평양에서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각 정당 대표들의 제 2 차 연합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본 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귀하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 리 연 형 묵

1990년 2월 14일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보 내 는 편 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은 2월 14일 제 2 차 연합회의를 가지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소집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연합회의에서 최근의 변화된 정세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협상회의소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고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1월 9일부 편지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 일성주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새로운 협상제안은 4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있는 우리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전환적인 의의를 가지는 애국적발기입니다.

오늘 이 제안은 날이 갈수록 내외의 더욱 커나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있습니다.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은 한결같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이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훌륭한 조치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발표된지 불과 한달사이에만도 세계 1백여개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새로운 제안에 지지를 표시하는 련대성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반도의 통일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비상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도 커다란 기대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고있으며 야당과 재야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모든 사실은 우리의 획기적인 평화통일방안이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념원을 가장 훌륭히 반영하고있으며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밝혀준 정당한 제안이라는것을 뚜렷히 확증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으며 새로운 제안의 실현전망에 대하여 낙관하고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불확정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제안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부정적인 립장과 태도입니다.

지난 2월 1일 남조선 국무총리가 보내온 회답편지에 의하면 북과 남은 적지 않은 문제들에서 아직 견해상 차이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이 자신이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의 존재를 부인해나서고있는데 대하여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을 기만하고 자신의 량심마저 속이는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어떻게 하나 민족분렬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그대로 두고 북과 남사이의 현 격폐상태와 나라의 분렬을 물리적으로 유지하려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리해할수 없습니다.

귀측에서 말로는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하지만 콩크리트장벽을 그대로 두려고 하는한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귀측 당국이 우리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에 대응하여 제기하고있는 《통행, 통신, 통상 협정》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하여도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이 두개의 국가로서 서로 교류하며 남남끼리- 살기 위한것이지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것으로 될수 없습니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유엔에 단독으로 들어가자고 하고 《두개 조선》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형편에서는 통행, 통신문제나 경제교류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나라의 통일에 어떠한 도움도 줄수 없는것입니다.

우리는 통행, 통신 문제나 경제교류문제가 해결되자면 그에 앞서 귀측의 통일의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증거로서 우선 콩크리트장벽부터 허물어버릴 용의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남조선 국무총리의 회답편지가운데 우리가 심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회답방식에 대한 그릇된 편견입니다.

남조선에 있는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것은 온 민족의 절실한 리해관계와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적문제인것만큼 이

문제를 정당하게 풀자면 옹당 민족의 총의를 모을수 있는 폭넓은 협상마당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합법적인 야당까지도 대화에서 배제하고 오직 《정상회담》만을 고집하는것은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리념에도 어긋나는것이며 자신이 주장하고있는 통일문제해결의 《민주주의적원칙》과도 배치되는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쌍방사이의 최고위급회담에 주의를 돌리고 있으며 협상회의 소집제안에도 최고당국자의 참가를 예견하고있습니다.

그런것만큼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최고위급이 서로 만날것을 바란다면 구태여 우리가 제의한 협상회의방식을 반대할 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협상회의방안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정계개편 문제입니다.

해마다 미군과 함께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가일층 격화시키고 대화의 정상적인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올해에도 여러갈래의 북남대화들을 일시에 중단시켰으며 우리의 새로운 협상회의소집제안에까지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바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이 가져다주고있는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번째 편지를 남조선당국과 현존하는 2개 정당에만 보내지만 이것은 우리와의 협상대상을 이에 국한시키거나 고정화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조선에서의 정계개편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정당들도 응당 협상회의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도 협상회의 당사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평화통일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발생한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조성된 정세에 맞게 하루빨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대책을 천명하는바입니다.

첫째로, 귀측 당국은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민족분렬과 북남대결의 상징인 콩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 용의를 지체없이 표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귀측 당국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하면서 《최고책임자회담》을 열것을 주장하고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협상회의의 테두리안에서 쌍방 최고위급의 상봉을 별도로 마련할수 있을것이라는 립장을 밝히는바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협상회의를 성과적으로 준비하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귀측 당국 및 각 정당 대표들과 개별적이든 집체적이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만날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협상회의가 전민족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귀측 당국과 현존 야당은 물론 앞으로 창당될 어떤 정당에도 항상 협상의 문을 열어놓을것입니다.

다섯째로, 귀측 당국은 중단된 여러갈래의 북남대화를 다시 잇고 협상회의소집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진행하고있는 《팀 스피리

트 90 》합동군사연습을 빠른 시일안에 중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당면대책에는 하루속히 협상회의를 마련함으로써 조국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진지한 남원이 담겨져있습니다.

우리는 협상회의소집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당신들이 제기하는 다른 문제들도 진지하게 대하고 서로의 견해차이를 좁혀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통일을 전구하는 거래의 목소리를 한시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반세기 가까이 쌓여온 민족분렬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평화통일방안과 협상제의를 7천만 거래의 통일념원을 풀어주기 위한 북반부 모든 정치인들의 애국적호소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기약하는 우리의 협상회의소집 제안과 새로운 다섯가지 당면대책을 신중히 대하고 이에 성의있는 대답을 보내줄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의

제 2 차 련합회의

1990년 2월 14일

평 양

(※ 북측은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동일날짜에 강영훈 국무총리, 평화민주당 김대중총재에게 보내왔음.)

라.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2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귀하

나는 귀하의 2월 14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먼저 지난 2월 1일자 본인의 편지에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남북관계의 현실을 외면한채 귀측 「연합회의」 편지를 전달해 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귀측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말하면서도 허구적인 콘크리트장벽과 비현실적인 「협상회의」를 거듭 들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측의 자위적 군사훈련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시비해 나선데 대하여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개방과 개혁의 큰 흐름속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질서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7천만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날로 드높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동포가 모든 부문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통일된 국가를 완성하여 다함께 풍요와 행복을 꽃피워 나가는 것은 비단 온겨레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진운에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냉전시대의 유산인 긴장과 대결의 구조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민족화합을 통해 평화와 민주번영의 대로를 힘있게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측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평화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이에 대한 귀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으며, 7.7선언 이후 그 실현을 위한 세반조치를 꾸준히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아직까지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 신뢰회복에 아무런 관심과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귀측이 새삼스럽게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허구적 선전논리를 내걸고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려는 것은 귀측이 남북간의 실질적 대화와 교류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갈망하는 충정에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북당국자들은 이러한 소모적인 편지나 주고 받으면서 시일을 보낼 것이 아니라, 통행·통신협정 등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치부터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바란다면 응당 그 해법의 진솔함과 책임을 가진 쌍방 당국간의 회담을 하루속히 성사시켜야 하며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쌍방당국 최고책임자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협상회의」를 계속 앞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측이 누차 밝혀 왔듯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귀측도 당국과 정당이 해야할 일을 따로 부여하고 있고 남북간에 그동안 여러차례의 회담을 특성에 맞게 진행시켜온 사실에서 귀측이 구태여 「협상회의」를 조건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남북간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호 인정과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귀하도 잘 알다시피 우리측은 올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축소하여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귀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진행중인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구태를 되풀이 하는가 하면 최근 전군과 준군사조직에 대해 전투동원 준비명령을 하달하는 것으로 답해 왔습니다.

나는 귀측이 긴장을 완화하는 대신 대결을 조장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대신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더이상 지속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비롯한 기존대화에 성실히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라면 반세기 가까운 고통과 불행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자존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절실한 소망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번영과 책임전가에 안주하여 역사적 소임을 회피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이같은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당한 태도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루속히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려 평화와 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선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90년 3월 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마. 북한 정무원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3차 대남편지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로 태 우 귀 하

나는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협의회에서 채택한 《남조선의 당국과 민주자유당 수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귀하에게 보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 리 연 형 북

1990년 3월 22일

남조선의 당국과 민주자유당 수뇌들에게

보 내 는 편 지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두번째 편지에 대한 회답편지에서 또다시 협상회의소집을 거부하고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하여 실망을 감할수 없습니다.

귀측의 편지는 당국과 정당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의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우리의 편지에 대한 상응한 대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측이 이번 회답편지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허황하고 온당치 못한 주장을 거듭 되풀이한 조건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수 없습니다.

귀하도 아다시피 우리는 년초에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을 마스고 북과 남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의 연합회의를 열고 귀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해당한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이 편지에 대한 첫번째 회답편지에서 현실을 터무니없이 기만하고 무례한 주장까지도 서슴치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 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고 90년대에는 기어이 통일을 이루려는 애국충정으로부터 모든것을 참고 다시 5개항의 구체적제안이 담긴 편지를 두번째로 귀측 협상대상자들에게 정중히 보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보내온 이번 귀측의 편지라는것을 보면 귀측은 말로는 《화해》니 《통일》이니 하지만 실지로는 대결과 분렬의 립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겨레의 막을수 없는 통일열망마저 외면한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자체를 덮어놓고 거부해나서고있습니다.

제손으로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도 없다고 하고 통일문제를 론하자고 하는 협상회의도 못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귀측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것

입니다.

만일 귀족 지역에 분령과 대간의 상징인 콘크리트장벽이 없다고 한다면 귀족으로서도 그와 관련한 사진, 녹화자료를 넘겨받는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현지에서 확인하도록 한대 대한 우리의 세의도 거부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국토의 허리를 가로질러 쌓아놓은 업연히 실재하는 콘크리트장벽조차 없다고 계속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려 하는 형편에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과연 털끝만한 민족적당심이나 인간으로서의 리성을 가지고있는지를 이제는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귀당국이 콘크리트장벽을 그냥 두고 그 무슨 《통행, 통신협정》을 체결하여 래왕과 개방을 실현하자는것은 진실로 제한없는 래왕이나 폭넓은 개방을 하려는것이 아니라 당국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밑에서 극히 부분적이고 협소한 범위의 교류나 하자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 맺는 국제협약방식의 《협정》을 같은 민족내부에서 《체결》하자고 하는것 자체가 민족적건지에서 보나 통일의 선지에서 보나 천만부당한것임을 귀족은 알아야 합니다.

귀당국이 진실로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통일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간 사람들을 구속하고 처형하는것과 같은 반민족적인 폐쇄정책을 버려야 할것이며 《통행, 통신협정》같은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용단부터 내려야 할것입니다.

귀측이 주장하는 《최고책임자회담》에 대하여 말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협상회의제의를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만일 귀측이 진실로 최고위급이 만나 통일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만날수 있는 무대까지 열어놓고있는 우리의 협상회의제안을 신중히 대하고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번 두번째 회답편지에서조차 우리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최고위급회담까지도 전면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귀측은 확실히 무분별하게 행동하고있습니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이 무엇이 땃땃한 일이라고 귀측은 우리가 취한 정당한 자위적조치까지 시비하며 자기의 반민족적행위를 변호하려 하는것입니까.

특히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귀측이 요즘 이른바 《땅굴문제》라는것을 또다시 들고나와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키면서 북남관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3월 14일에 진행된 제 455 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미군측이 우리의 공동조사제의를 회피하여나선 사실은 이전의 모든 《땅굴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의 《제 4 땅굴》이라는것도 귀측이 계획적으로 조작한 날조품이라는것을 명백히 확증하여주고있습니다.

귀측이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땅굴사건》과 같은 서툰 모략극을 꾸며내어 그것을 연명책으로 삼으려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아직도 콘크리트장벽의 존재자체를 인정하는것을 두려워하며 부인하고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대표들을 망라하는 공동조사단을 무어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진행하는것을 귀측에 제의합니다.

공동조사단은 우리측에서 당국과 각 정당 대표 10여명과 군사전문가들, 기자들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성원으로 편성하되 이들에 대한 수송은 우

리측 직송기로 하며 공동조사는 서부로부터 동부로 가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과 정당들에서 파견하는 3명정도의 실무자들이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것을 세의합니다.

우리는 귀측이 콘크리트장벽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이 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똑똑히 깨닫고 이에 상응한 긍정적조치를 취할것을 희망하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 표 협 의 회

1990년 3월 22일

평 양

(※ 북측은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동일날짜에 강영훈 국무총리에
게 보내왔음.)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귀하

나는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협의회에서 채택한 편지를 귀하에게 보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무원

총 리 연 형 묵

1990년 3월 22일

보 내 는 편 지

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은 온 겨레의 공동의 노력으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일념에서 협의회를 가지고 귀하에게 세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현시기 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하는것은 통일의 근본장애요소를 제거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질적으로 앞당기게 하는 중대한 대책으로 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년초에 새로운 협상제안을 천명한 이후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공화국 정부, 정당 대표들의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콩크리트장벽을 마스고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구체적제안을 담은 편지를 채택하여 남측 협상당사자들에게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공명정대한 협상제안에 대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은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남조선 국무총리는 2월 1일에 이어 3월 3일에 우리측에 보내온 회답편지에서 세계가 다 확인하고 지어 군사정전위원회 미군측도 인정하고 있는 콩크리트장벽을 《허구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북남공동으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그 유무를 확증하게 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도 거부해나서고 있습니다.

남측 당국자들이 말하는대로 콩크리트장벽이 없다면 콩크리트장벽을 찍은 사진자료와 북화테프, 영화필름을 받아가는것을 회피할수 없으며 북과 남의

각계각층 대표들로 참관단을 조직하여 공크리트장벽을 참관시키자는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공크리트장벽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화증하도록 하자는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한것은 공크리트장벽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것이나 나쁜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이 이번 편지에서 북남사이에 《동행, 동진협정》을 체결하라고 하고 《최고당국자회담》을 하라고 한데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말로는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당국주도하에 극히 제한된 범위의 래왕과 부분교류나 하면서 남남처럼 살아가자는것이며 대화와 통일문제해결에서 합법적야당까지도 배제하고 분렬정책을 계속 추구하려는 본심에서 출발한 극히 불순한 주장입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말공부나 하면서 서로 반복하고 대결하며 시간을 보내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습니다.

지난날 국토의 분렬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였던 나라들에서도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통일의 길로 나가고있는 이때 통일에 대한 지향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한 우리 민족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분렬의 장벽을 쌓아두고 동족끼리 대결하면서 분렬을 지속시킨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분렬로 인한 비극적인 사태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으며 하루속히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 가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나라의 통일문제는 사상과 세도 이전의 문제이며 여기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들은 나같이 회피할수 없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하는 주의주장을 초월해야 하며 민족적량심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콩크리트장벽을 마르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에 귀당이 하루속히 응해나올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촉구하는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콩크리트장벽의 실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대표들로서 공동조사단을 무어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는것을 귀하에게 제의합니다.

공동조사단은 우리측에서 당국과 각 정당 대표 10여명과 군사전문가들, 기자들을 포함하여 100여명의 성원들로 편성하되 이들에 대한 수송은 우리측 직승기로 하며 공동조사는 서부로부터 동부로 가면서 실시하는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과 정당들에서 파견하는 3명정도의 실무자들이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접촉을 가질것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가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응분의 노력을 경주하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대 표 협 의 회

1990년 3월 22일

평 양

바.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관련

3차 대북서한

(90. 4. 7 전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총리 연형복 귀하

나는 귀하의 3월 22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귀하에게 보낸 두차례의 편지에서 더 이상 남북간에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일을 되풀이 하지 말고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비롯한 기존대화하에 하루속히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귀측은 그간 남북간에 진행되어온 정상적인 각종 남북회담을 상사시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생각보다는 남북 현실에 맞지도 않는 「남북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를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7천만 온건계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내외신 기사들에 의해 공개화인된 우리측의 대전차 방어용 군사시설물까지도 귀측이 조사해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귀측이 이와같이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주장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온겨레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민은 아무도 귀측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개방과 개혁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전차 구조물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은 동족상잔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보장의 시설물로서, 공격형 군사력을 전방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귀측이 이를 철거하라는 것은 우리측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귀하도 잘 아다시피 과거 남북왕래회담이나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등 남북간의 교류가 이 군사시설물로 해서 장애를 받은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측이 우리의 대전차 구조물을 마치 「베를린장벽」과 같은 것인양 왜곡 선전하고 있는 것은 북한사회의 개방과 남북의 자유왕래를 열망하고 있는 겨레의 시선을 만곳으로 돌려 보려는 한낱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간에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 몇백명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마저 거부하면서도 새삼스럽게 「콘크리트 장벽」을 운운해 나르고 있는 귀측 스스로의 자가당착적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에는 이미 여섯차례에 걸쳐 남북고위급회담을 열기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의제를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로 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을 바란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빨리 성사시켜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행·통신을 보장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조치들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나는 제 4 남북용 땅굴 발견과 관련하여 귀측이 이를 시인·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측의 모략극이라고 둘러대며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감할 수 없습니다.

온 세계인이 평화와 번영을 향해 슬기를 모으고 있는 이때에 한반도만이 아직도 냉전의 울타리속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명명백백한 사실마저 은폐하거나 왜곡해 보겠다는 귀측의 온당치 못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귀측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남북간 불신과 오해의 장벽을 헐어내기 보다 더욱 그 장벽을 높이 쌓는데 열중하고 거래의 고통과 불행을 해소하기 보다 이를 외면하려는 태도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평화와 통일에 역행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우리측의 노력과 성의에 의해 귀측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하가 변명과 책임전가로 시인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쌍방 총리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90년대에는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는 민족사조의 영광된 시대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990년 4월 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사. 북한 정무원 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관련 실무접촉

제의 대남편지

(90. 7.23 접수)

대한민국 대통령,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로 태 우 귀 하

나는 우리측 당국과 각 정당들의 위임에 의하여 현시기 북과 남 쌍방이 관심하고있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념원에서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귀측의 20일부 《특별발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측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남측에서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우리측에서 철조망을 제거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명에서는 판문점을 통한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에 장애로 되는 법률적요인을 제거하고 방북인사들을 석방하며 8월 15일 판문점에서 열리기로 된 범민족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명에서는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광범히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측의 이 제의들은 일정에 올라있는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

문제를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해결함으로써 하루빨리 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인고 90년대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고있는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올해에 어떻게 하나 래왕의 문을 열고 북과 남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것을 간절히 바라고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책임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마땅히 45년동안 쌓여온 서로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향하여 큰 걸음을 내디디는 정치적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시기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의 길을 트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중대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쌍방이 다같이 의의를 부여하고 관심을 돌리고있는 초미의 문제로서 귀측에서도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는 의사들 이미 표명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쌍방은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입장에 선다면 이 문제를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에 장애로 되는 모든 장벽을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장벽은 다름아닌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쌓아놓은 공크리트장벽과 동족들사이의 접촉마저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적조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있으며 엄연히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있는 이러한 물리적, 법적 장애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 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측으로서도 이 사실만은 부인할수 없을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귀측은 이번에 《민족교류안》을 내놓으면서 8월 15일을 전후한 5일 동안만 판문점 남측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45년 동안이나 갈라져 살아온 7천만겨레의 래왕과 상봉에 대한 폭발적인 욕구를 실현시켜줄수 있겠습니까.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려면 협소한 외통길에 시한부를 정해놓고 할것이 아니라 동서로 이어진 600리 전구간에 걸쳐 기일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자유로이 래왕할수 있게 북과 남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늦게나마 반응을 표시한 귀측이 래왕의 통로와 시일을 한정시킬 아무런 까닭이 없으며 제한없이 문을 열어놓는것을 꺼려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을 래왕할수 있는 문은 군사분계선 전지역에 걸쳐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길에서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이러한 조치는 빨리 취할수록 좋을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미 귀측에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남측 지역의 콘크리트장벽과 북측 지역의 철조망을 동시에 제거하며 이를 위한 공동기구로서 분단장벽해체 북남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이미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귀측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빠른 시일안에 북남 당국과 각 정당 대표들의 실무접촉을 가질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하면서 오는 7월 27일 오전 10

시 공화국 당국과 정당들의 위임을 받은 4명의 대표들을 판문점중립국감
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제의는 큰 반세기동안이나 갈라져사는 겨레들에게 어떻게
하나 자유로운 래왕과 상봉의 기쁨을 주고 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려
는 숭고한 념원을 담고있습니다.

우리의 제의에 대한 귀측의 태도는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통일에 대한
립장을 내외에 보여주게 될것이며 온 겨레의 주목을 받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의 제의를 신중히 대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주
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

총 리 연 형 묵

1990년 7월 21일

(※ 북측은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동일날짜에 강영훈 국무총리에
게 보내왔음.)

평화민주당 총재 김 대 중 귀하

나는 우리측 당국과 각 정당들의 위임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
는데서 긴급하게 나서고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는 념원으로부터 귀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화국 정부, 정
당, 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귀측 당국자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을 《민족교류기간》으로 하자고 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
다.

성명에서는 북과 남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들에 대한 우리측의 원칙적립장을 밝히면서 남측에서 콩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우리측에서 철조망을 제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단장벽해체 북남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명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래왕에 장애로 되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을 철폐할것과 자유래왕에 대한 귀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북인사들을 석방하고 박두한 범민족대회를 방해하지 말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명에서는 끝으로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다시금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들은 일정에 올라있는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 문제를 민족적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로 됩니다.

오늘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 분단의 력사가 반세기를 넘기지 말고 90년대의 가까운 앞날에 통일위업을 이룩하려는 목표밑에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습니다.

북과 남의 우리 정치인들은 마땅히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이 강렬한 념원과 의지를 깊이 헤아리고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노력을 다함으로서 민족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시기 나라의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우리 정치인들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책임적인 과제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의 길을 틱여놓는것입니다.

세계가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분단의 장벽은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 구축되어있는 콩크리트장벽과 동포형제들사이의 래왕과 접촉을 범죄시하는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입니다.

••
이러한 물리적 및 정치적 장벽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느때 가도 민족적 념원에 부합되게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측 당국에서는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콩크리트장벽의 존재사실을 부인하고 그것을 허물려 하지 않고있으며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조차도 철폐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남측 당국이 《민족교류안》을 내놓으면서 판문점 외통길만 개방하겠다고 하고 그나마 5일동안만 열고 다시 문을 닫겠다고 한 사실을 놓고도 전면개방과 자유래왕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일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상명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체포투옥된 방북인사들을 석방하며 범민족대회를 방해하지 않음에 대하여 공식태도를 표명할것을 요구한 리유도 바로 이러한 의심에서 출발한것이였습니다.

귀하도 잘 알고있는바와 같이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것은 반세기동안이나 갈라져사는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이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상명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남측 지역의 콩크리트장벽과 북측 지역의 철조망을 동시에 제거하며 이를 위한 공농기구로서 분단장벽해체 북남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남측에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가 내놓은바 있는 북과 남의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시급히 소집할것을 남측

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빠른 시일안에 북남 당국과 각 정당 대표들의 실무접촉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접촉에 귀당에서도 자리를 같이하여줄것을 정중히 제의하는바입니다.

우리로서는 오는 7월 27일에 접촉을 가지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날 오전 10시에 공화국 당국과 정당들의 위임을 받은 4명의 실무대표들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제의는 분단으로 인하여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겨레들에게 어떻게 하나 자유로운 래왕과 상봉의 기쁨을 주고 통일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려는 숭고한 념원을 담고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우리의 제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 리 연 형 묵

1990년 7월 21일

(※ 북측은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동일날짜에 이기택 민주당 총재에게 보내왔음.)

2. 범민족대회

가. 북한, 범민족대회 소집 (90.8.15) 관련 대남편지

(90.3.29 방송 공개)

선국민족민주련합에 보내는 편지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7월 평양에서 열렸던 해내외 동포들의 조국통일 촉진대회에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범민족대회를 열때 대한 귀단체의 필기를 지지하여 조국해방 45돌째 되는 올해 8.15일에 판문점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해내외 광범한 동포들이 참가하게 될 8.15 범민족대회소집은 우리민족 통일역사운동에 특별한 사변으로 기록될 민족의 대축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이래 처음으로 소집되게 되는 범민족대회 개최를 의심할 바 없이 북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풀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민족주체적 힘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가는 데서 새로운 위기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민족대회소집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동안 대회의 성과적소집을위한 제반 준비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북과 해외측에서는 대회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형편에서 대회소집과 관련한 일련의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 필요성을 다같이 인정하고 오는 4월 6일과 7일에 베를린에서 연락위원회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과 미주 구라파를 비롯한 해외 여러지역의 동포단체들에게도 이미 이 연

락위원회에 파견할 한 두명의 대표를 각기 선정하고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민족대회 발기자인 귀단체 대표들이 응당 이번 연락위원회에 참가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선노협과 전대협 등 다른 단체들에서도 대표를 파견해 오면 환영할 것입니다.

이번 연락위원회에서는 8.15 범민족대회의 거대한 의의를 재확인하고 대회에 상정할 의정과 문건들 그리고 대회참가자격과 대회일정등 일련의 중요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려 나갈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는 귀단체가 8.15 범민족대회의 성과적 소집을 위하여 연락위원회에 자기의 대표들을 반드시 보내 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1990년 3월 29일

평 양

나. 북한, 범민족대회 제 2차 예비접촉(90.7.26) 관련 대남편지

(90.7.24 방송공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앞

나는 민족분단의 비운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숭고한 목적 밑에 범민족대회 소집을 발기하고 그실현을 위하여 각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귀단체에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귀 단체가 얼마전 베를린에서 진행된 범민족대회 제 1차 예비회의 결성에 따라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제 2차 예비회의를 가지기로 한 것은 범민족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내외에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두해전 전민련에 의해서 발기된 범민족대회를 대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호응 밑에 지금 마감단계에서 그 준비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일부 세력들이 범민족대회를 분열과 대립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로막으려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열기와 범민족대회를 기어이 성사시키려는 운거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7월 26일 서울에서 범민족대회 제 2차 예비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대회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8.15 범민족대회는 의심할바 없이 '90년대에 통일을 성취하려는 거레의 강렬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민족의 대축제로 될것입니다.

범민족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이 대회를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 성심성의로 노력하여온 전민련의 기다란 승리로 되고 우리민족의 통일운동의사에 특이할 사변으로 될것이며, 통일논의와 대화를 독심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세력에게는 큰 타격으로 될것입니다.

나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민족의 굳은 신념을 내외에 보여주게 될 범민족대회 제 2차 예비회의에 5명의 우리측 대표를 보낼것을 알려면식 우리와 전민련과의 큰 첫 만남으로 될 이 회합의 성과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성의를 표하면서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년 7월 23일

다. 북한, 범민족대회 제 2차 예비접촉 (90.7.26) 관련 대남편지

(90.7.25 접수)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는 귀측 당국의 공식발표를 고려하여 전국민
족민주운동연합이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8.15 범민족대회와 관
련한 제 2차 예비회의에 5명의 실무대표들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우리측 실무대표들이 서울에 나가 이미 베를린에서 진행
한 범민족대회 제 1차 예비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범민족대회소
집과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8.15 범민족대회에 대한 해내외 동포들의 기대에 비추어보나 북남사
이의 접촉과 래왕 문제가 성숙되어가고 있는 현실로 보나 귀측이 범민족
대회를 가로막아나설 이유가 없을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측 실무대표들이
부과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올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보
장하며 신변안전을 담보해주리라는 희망을 표시합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년 7월 24일

3. IPU 총회 남북단일대표단 구성·참가

가. 북한 IPU의회그루빠 위원장, IPU총회 단일대표단 구성·참가관련
남북의원단 회담제의 대남편지

대한민국의회그루빠 위원장

김 재 순 귀하

최근 국제의회동맹 총서기 빼에르 코르니옹선생은 우리에게 지구 제 84차총회를 평양에서 소집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면서 만약 총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통일위업에도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라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총서기선생에게 지구사업과 우리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평양에서 지구총회를 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알려주는것과 함께 올해 가을에 있게 될 제 84차총회부터 이 지구 총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대표단을 무어 참가형태 대한 우리의 희망도 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구총회에 북남유일대표단으로 참가형태 대한 희망을 표시한것은 우리 민족이 일일천수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바지하려는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한것입니다.

사실 북남체육회담을 통하여 제 11 차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인팀으로 참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조건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구총회에 북남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는 문제도 능히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이 유일대표단을 구성하여 기구총회들에 참가하게 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공동의 노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로부터도 광범한 지지와 찬양을 받게 될것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기구총회에 북과 남이 유일대표단을 부어 참가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의회그루빠회담을 가질것을 귀측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우리는 될수록 오는 4월에 있게 될 기구 제 83차총회전으로 하루빨리 합의를 보기 위하여 남북의회그루빠대표들이 조속한 시일안에 마주앉아 협의하였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합니다.

북남의회그루빠회담을 위한 대표단은 쌍방이 각각 의회그루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로서 구성하며 회담날자는 2월 7일로 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봅니다.

회담장소는 「통일각」과 「평화의 집」으로 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귀측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루빠위원장

양 형 섭

1990년 1월 15일

4. 남북적십자회담

가. 한적총재, 제 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제의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오 귀하

오늘날 국제적 조류는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세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체제를 조율하여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도 대명의 90년대를 맞이하여 민족통일의 위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하루빨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간에 기유로운 왕래, 상봉, 재결합의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남북간에는 열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의제 5개항 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의견합치를 보았으며 이미 쌍방은 사업 실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남간 합의가 초안을 각기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는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 11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중단되지 4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열리지 못하리 있을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너욱이 작년에 있었던 남북적십자·김일대표접촉에서 제 11차 적십자 본 회담 개최일자와 함께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송탄약 교환일기에 합의해 놓고도 이것들이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은 감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송탄약 교환사업이 하루빨리 성사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공연종목과 관련하여 귀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언제라도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분단 45년이라는 기간은 남북이산가족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긴 세월입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오랜 세월동안 그리운 혈육과 만날 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한채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 오늘의 비극적 현실은 하루속히 타개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켜주는 일을 기본사명으로 삼고 있는 적십자인들이라면, 생전에 고향을 찾아 성묘하고 헤어진 혈육들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이산가족들의 절박한 인간적 호소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에 적십자회담이 시작된지 2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이상 적십자 본회담이 중단된채 재개되지 못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된다면 이는 인도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적십자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되어있는 제 11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오는 6월 중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 5월 7일

대한 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5. 한필성·한필화 상봉 관련

가. 한적총재, 한필화앞 한필성씨 편지 전달요청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사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3월초 제2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일본 삿포로에서는 서울과 평양에 떨어져 살고 있는 한필성씨와 한필화씨 남매간에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40여년만에 만난 이 두 남매가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으며, 한필성씨가 현지에서 평양에 살아계신 노모와 직접 전화통화까지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한필성씨는 대한적십자사에 찾아와 한필화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기면서 이 편지가 귀 적십자회를 통하여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이들 두 남매가 이번 상봉을 계기로 서로의 주소를 확인하고 편지보나마 소식을 이르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욕구로서, 이는 우리 적십자인들이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동봉한 한필성씨의 편지를 귀 적십자회가 한필화씨에게 전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귀 적십자회가 한필성씨와 한필화씨 사이에 인도의 가교를 놓는 숭고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한필성씨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노모와의 상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1990년 3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특별시 중구역 창광거리 련화2동 2현관 13층 2호

한 필 화 앞

그리운 우리 넷째 필화에게

그동안 잘 있었느냐 긴 여행과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피로가 풀렸으면 좋겠다. 보고싶은 어머니도 건강한지 궁금하구나.

일본 삿포로에서 네가 주었던 석분화 호랑이 그림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여 잘 받았다. 너를 보듯이 반갑구나. 일본 삿포로에서 몇일동안 같이 지냈던 일과 일본동포들의 성의는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된다.

지난번 남의 나라에서나마 너를 얼싸안고 비록 열흘도 안되지만 같이 지냈던 일들이 꿈 같아 잊을쑤가 없다. 또한 국제전화로나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나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뵈고 싶어 못견디겠구나.

우리가 헤어진지 40년만에 만나 다시 헤어질때 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만남이 끝났다고 생각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소망을 꼭 실현하고 싶다.

먼저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은데 네가 당국을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 어머니를 파주 교하 동패리 우리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하면 우리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겠다.

만약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기 불편하다면 내가 고향으로 어머니를 찾아
뵙겠다. 그러니 그럴경우 내가 평양을 찾아 살수 있도록 내가 당국의 허가
를 받아 하루빨리 초청장을 보내주기 바란다.

나와 우리 가족의 소망을 한시바빠 풀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40년
만에 만나고 또 헤어져야 하는것을 전세계 사람들이 테레비전으로 지켜보
며 우리 나라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모두 함께 느꼈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우리 말고도 수많은 이
산 가족들에게도 생전의 자기 가족들과 만날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꼭 만나야 하겠다.

필화야 늘 건강에 주의하고 나와 오빠의 소원을 풀기위해 서로 애쓰자.
좋은 소식의 회답을 바란다.

1990. 3. 23

대한민국 경기도 과주군 교하면 동패 1리 166-2

전화 0348-942-6518

오빠 한 필 성

나. 북적 위원장대리, 한필성씨앞 한필화 편지 전달요청 대남편지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험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 한필화의 요청에 따라 남소선에
있는 그의 오빠 한필성선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하여 보내오니 이를 본
인에게 전달하여줄것을 희망합니다.

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1990년 3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특별시 중구역 창광거리 려화2동 2현관 13층2호

한 필 화 앞

그리운 우리 넷째 필화에게

그동안 잘 있었느냐 긴 여행과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피로가 풀렸으면 좋겠다. 보고싶은 어머니도 건강한지 궁금하구나.

일본 삿포로에서 네가 주었던 석분화 호랑이 그림이 오늘 서울에 도착하여 잘 받았다. 너를 보듯이 반갑구나. 일본 삿포로에서 몇일동안 같이 지냈던 일과 일본동포들의 성의는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된다.

지난번 남의 나라에서나마 너를 얼싸안고 비록 열흘도 안되지만 같이 지냈던 일들이 꿈 같아 잊을쑤가 없다. 또한 국제전화로나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나서는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뵈고 싶어 못견디겠구나.

우리가 헤어진지 40년만에 만나 다시 헤어질때 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만남이 끝났다고 생각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소망을 꼭 실현하고 싶다.

먼저 어머니를 초청하고 싶은데 네가 당국을 찾아가서 허가를 받아 어머니를 파주 교하 동패리 우리집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하면 우리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초청장을 보내겠다.

만약 어머니님을 서울로 모시기 불린다면 내가 고향으로 어머니님을 찾아
뵙겠다. 그러나 그럴경우 내가 평양을 찾아 갈수 있도록 네가 당국의 허가
를 받아 하루빨리 초청장을 보내주기 바란다.

나와 우리 가족의 소망을 한시바빠 풀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40년
만에 만나고 또 헤어져야 하는것을 전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
며 우리 나라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모두 함께 느꼈을 것이다.

이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며 우리 말고도 수많은 이
산 가족들에게도 생선의 자기 가족들과 만날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는 꼭 만나야 하겠다.

필화야 늘 건강에 주의하고 나와 오빠의 소원을 풀기위해 식모 애쓰자.
좋은 소식의 회답을 바란다.

1990. 3. 23

대한민국 경기도 과주군 교하면 동패 1리 166-2

전화 0348-942-6518

오빠 한 필 성

나. 북적 위원장대리, 한필성씨앞 한필화 편지 전달요청 대남편지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험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 한필화의 요청에 따라 남조선에
있는 그의 오빠 한필성선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하여 보내오니 이를 본
인에게 전달하여줄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나는 이 기회에 귀측이 지난 3월 28일 한필성선생이 자기의 누이동생 한필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귀하의 편지 속에 넣어보낸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바입니다.

귀측은 3월 26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오면서 한필성선생이 그의 누이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려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으며 편지를 넘겨주는 당일에도 이에 대해 한마디의 량해도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귀측은 지난기간 우리측이 귀적십자사를 통하여 귀측 지역에 있는 합법적단체들에 편지를 전달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을때 부당한 구실을 붙이면서 끝끝내 전달해주지 않는것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신의없는 행동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한필성선생의 편지를 넘겨보냈고 따라서 쌍방사이에 불미스러운 전례를 남겨놓았지만 흠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숭고한 일념으로 부터 편지를 본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번에 한필화, 한필성 남매간에 편지를 주고받게 하고 서로 상봉하도록 하는것은 응당 북남적십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다루고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이며 좋기는 북남적십자회담이 타결되어 북과 남으로 흠어진 수많은 가족, 친척들 모두가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상봉하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결합이 실현되게 될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필화, 한필성 남매간에 문제가 20년전부터 민족의 관심사로 되어왔고 또 이번에 일본땅에서 서로 만났으며 어머니와 아들사이에 국제전화로 통화했던점 등을 고려하여 적십자회담과는 관계없이 북과 남으로 흠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 모두의 문제가 해결되기전이라도 특별로

삼고 별도로 대하는 것과 같은 아량을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귀족이 이번과 같은 부레하고 신의없는 행동에서 용당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루속히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
친우들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적극 노력하리라는 희망을 표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대리 이강호

1990년 4월 19일

보고 싶은 필성오빠에게

그리운 오빠

일본땅에서 만났던 기쁨과 감격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또 오
빠가 보내준 편지를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를 통하여 반갑게 받았습니
다.

삿뽀로에서 헤어진 후 오빠와 형님이 무사히 집에 도착하고 온 집안이
모두 잘있다니 무엇보다 기쁩니다.

나도 오빠와 헤어진 후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여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
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한 집안식구들도 여전히 잘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께
서는 오빠와 국제전화로나마 만나본 후부터는 더욱 원기왕성하여 지내고 있
으며 이제는 눈을 감기전에 내 아들 필성을 직접 만나보는것이 소원이
라고 하면서 오빠를 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빠, 오빠의 편지를 받아보는 순간 오빠를 다시 만나는것 같습니다. 지
금도 귀전에는 한달전에 삿뽀로에서 들던 오빠의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오

는듯하고 눈앞에는 오빠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듯 합니다.

더구나 나이에 비해 걸쭉어보이는 오빠의 모습과 솔뚜껑처럼 되어버린 오빠의 손을 생각하면 가슴이 몹시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안의 장손 며느리로서 그동안 말없이 오빠의 뒤바라지를 해오며 고생하신 형님을 처음으로 뵈게된 기쁨과 감사한 마음도 금할길 없습니다.

어머님은 오빠와 생전 처음보는 형님의 사진을 보면서 성례도 치루어주지 못하고 레장감 한벌도 갖추어주지 못한것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다 나라가 분열된 탓에 겪는 설움이고 불행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만이가 옆에 없어도 환갑, 진갑, 팔갑까지 다 잘쇠고 90 고개를 바라보는 때에 필성이의 목소리를 전화로나마 들어 보았고 오늘 편지까지 받게되니 꿈만 같다고 하시면서도 오빠가 이번에 어머님을 서울에 초청한다고 한점에 대해서는 무척 노여워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도리상으로 보아도 에미품을 철없이 떠나간 자식이 철들어 다시 에미품을 찾아오는것이 당연하고 또 팔다리가 성성한 필성이가 이늬은 에미품을 먼저 찾아오는것이 아들된 도리이기도 한데 앓아서 이 에미를 오라고 하니 내 아들 같지 않은 그말이 잘 믿어지지 조차 않는다고 하시며 오래도록 분을 삭이지 못해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미국놈 있는 험한곳에 아들을 보내고 수십년을 걱정으로 지내며 애간장을 태워 왔는데 이제는 에미에게 와서 효도는 못할망정 그런곳에 에미까지 오라고 하는것은 낫아준 어미의 정도 모르고 자식된 도리도 지킬줄모르는 처사라고 나무람하시며 눈물까지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날이때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지내면서 이번같이 어머님께서 노

여위하시고 서럽게 눈물을 지으시는 모습은 처음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삿포로에 도착하여 함께 기사회견을 할때에도 앞으로 고향방문단교환이 실현되면 제일먼저 이북방문신청을 내서 어머님한테 오겠다고 하신 오빠였고, 저에게도 어머님생전에 기여히 찾아 뵈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신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되어 오빠가 이번에 약속과는 다르게 어머님을 먼저 서울에 오라고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오빠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으며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우리 가정문제를 그 어떤 다른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리용해보려는 좋지못한 기도가 숨어 있지않는지 의심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운 오빠, 어머님은 내아들 필성이가 절대로 그런 불효자식이 될수없다고 하시면서 오빠가 형님과 조카들을 모두 데리고 속히 어머니품을 찾아올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가족들을 데리고 평양에 오면 다시 돌아갈 생각일랑 말고 어머님과 한집에서 살면서 말 아들 구실을 꼭 해야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이간절한 소망을 풀어 드리는것이 오빠가 자식된도리를 다하고 어머님의 얼마남지않은 여생을 기쁘게 해드리며 효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머님을 만나기위하여 오빠네가 평양에 오면 우리해당 기관에서도 신변안전을 도모한 모든 편의를 다 보장해 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빠, 빈몸으로와도 좋으니 주저하지말고 온가족이 어머니품을 찾아 평양에올 용단을 내리여 어머님과 우리모두의 소망이 꼭 성취되도록 해주실것

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어머님과 나는 오빠와 형님, 조카들과 평양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와 형님, 조카들의 몸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 련화 2동 2현관 13층 2호

한필화 동생올림 전화번호 3 - 65 - 10

다. 한적총재, 북적 위원장대리 앞 한필성씨 편지 전달 관련 대북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한필성씨 부부의 평양방문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한필성씨의 요청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동봉합니다.

1990년 5월 1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대리 이 성 호 귀하

먼저 5월 21일날 방북을 허락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제 형편으로는 5월 15일에 갔으면 좋겠지만 필화의 사정이 그렇타니 5월 21일 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평양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돌아 오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하시지만 제가 어머니를 뵙고 살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도 이해 하실겁니다.

그러니 적십자 위원장님께서 제가 무사히 돌아 올수 있도록 정부의 허락을 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만 가려고 하는것은 필화에게도 이야기 했드시 우리 부부만 신청한 것이지 다른 가족들은 못가게 해서가 않습니다.

우리 애 들은 다 장성해서 따로 살고 있고 나만 할머니를 뵈야한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만 가려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청 마이크와 녹음기를 찾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필화와 조총련 국제국장 송암우 선생께도 설명을 했듯이 MBC 와 KBS 기자들이 취재 녹음을 하기 위해서 달아준 것이지 도청 마이크가 아닙니다. 여러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이게 도청을 합니까.

저는 단지 어머니만 뵙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미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조카들에게 줄 선물도 다 사놓았습니다.

필화가 말 하는데 어머니 건강이 하루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뵙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40년간 터전을 닦아 재산도 많이 모았고 이곳 자식들과 헤어져 또 이산가족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돌려 보내준다는 말씀이 없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루빨리 저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0년 5월 15일

한 필 성 올림

라. 한필화, 한필성씨 평양방문 관련 한적총재 앞 대남편지

(90.5.23 접수)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우리 가족들의 상봉문제와 관련하여 저와 저의 어머니는 이미 남조선에 있는 오빠에게 편지를 보내고 총재 선생에게도 간절한 청원을 한바 있습니다.

편지와 청원에서 우리가족은 오빠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오도록 하며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것과 우리가족의 이 상봉을 총재선생도 잘 도와줄것을 부탁드립니다. 필성오빠와 가족을 5월 21일에 평양에 보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팔십고령이 되신 저의 어머니의 소원으로 보나 지난번 삿뽀로에서 저의들 남매가 한 약속으로 보나 꼭 실현되어야 할 절실한 것이여서 그사이 우리가족은 하루를 백날 맞잡이로 기쁜 소식이 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열흘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다가 오빠가 와야할 날자가 림박해서야 뒤늦게 소식을 보내온것마저 책임적인 확답을 주어야 할 총재선생의 편지가 아닌 오빠의 이름으로 된 편지여서 펴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남조선 적십자사에서 편지마저 보내주지 않고 시일을 끌다가 나중에는 오빠와 가족들의 평양방문이 예정대로 실현될수 없게 만든데 대해 한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총재선생 우리 가족은 이번에 오빠의 이름으로 된 편지내용을 보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못해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편지에서는 아들들이 할머니를 보고싶어하지 않기때문에 그들을

데리고오시 않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가족은 이것을 오빠의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님이 계신다는것을 일면서 보고싶어하지 않을 그런 손자들이 어디 있으며 더우기 아버지로써 자기 자식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내놓고 말할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편지에서는 일본 삿포로에서 있는 상봉때 오빠의 몸에 달아놓았던 도청마이크와 녹음기가 기자들의 취재를 위한 것이였다고 하는것도 사실과 전혀 맞지않은 소리 입니다.

그때 우리 남매가 비밀리에 만난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만났는데 무엇때문에 기자들이 오빠의 의복속에 녹음기와 도청마이크를 숨겨서 달아놓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이번 오빠의 편지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타의에 의한것이지 오빠의 진심이 담긴것이라고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총재선생도 아다싶이 우리어머님의 년세는 올해에 여는다섯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40년동안이나 만나보지 못한 말아들을 자남 보지못하면 아주 못볼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을 만날 날은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재선생이 우리 가족의 상봉분계가 빠른 시일안으로 해결되도록 성심성의 협조하여줄것을 재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저로서는 귀적십사사가 일본에서 우리 남매가 만났을때 도청마이크와 녹음기를 오빠의 몸에 달아놓음으로써 상봉에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에 대해 관계당사자들이 사과할수 있도록 해당 조치를 취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뿐 아니라 손주들도 다 만나볼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는 우리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오빠의 일가족 모두를 평양에 보내주도록 최선을 다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오빠를 정치적으로 리용하거나 구박하는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 합니다.

끝으로 저는 필성오빠의 일가족이 평양을 방문하여 어머니를 만나뵈은 다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끼리 의논하여 해결할 성질의 문제인것만큼 귀 적십자사측에서 더이상 개입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저의 어머니의 부탁도 함께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총재선생이 우리가족의 청원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반가운 소식을 보내줄것과 아울러 우리가족의 상봉과 재결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주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 필 화

1990년 5월 22일

6.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및 범민족통일음악회

가. 북한음악가동맹 중앙위위원장, 범민족통일음악회 관련 우리측 인사 초청 대남편지

(90.9.19 접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앞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문화예술의 통일적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성원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전체 문화예술인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오늘 국토분단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적극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이러한 열망과 의지를 반영하여 평양에서는 10월 18일부터 윤이상선생의 발기에 따라 범민족통일음악회가 성대히 막을 올리게 됩니다.

북과 남, 해외 동포 예술인들과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진행되는 범민족통일음악회는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것이며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동포예술인들이 이번에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의 노래도 함께 부르고 동포애의 정도 함께 나눈다면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겨레들을 통일운동으로 고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는 윤이상선생의 제의에 따라 남조선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을 평양에서 열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다음과 같이 초청하는바입니다.

1. 리화녀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황병기
2. 국립창극단 지도위원 오정숙
3. 국립창극단 단원 정화영
4. 추계예술학교 국악과 조교수 김정수
5. 리화녀자대학교 음악대학 부교수 홍종진
6. 전국시우단체 총련합회 회장 김덕순
7.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오복녀
8. 국립국악원 연주단원 김광숙
9.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윤인숙
10.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회장 김덕수
11.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운영위원 리광수
12.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운영위원 강민석
13.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 회원 김운태
14.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로동은
15. 동아일보사 편집국 문화부 차장 림연철
16. 한겨레신문사 기자 안정숙
17. 기자 김경희

우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할 남측 문예인들과 기자들이 판문점을 통하여 평양으로 오는것이 편리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체류기간 그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공화국 해당 기관이 그들의 신변안전을 전적

으로 담보하고 부사히 돌아가도록 할것임을 알리는바입니다.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 원 칸

1990년 9월 18일

나. 서울전통음악 연주단 대표,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초청 대북서한

(90.11.14 전달)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김원칸 위원장 귀하

나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여 성공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귀하와 윤이상선생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울전통음악 연주단을 환영해 준 평양시민과 모든 북녘 동포들에게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민족화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동포들간의 음악과 체육의 뜻 깊은 교류가 시작된 1990년을 보내고 보다 일찍 통일의 길이 열리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를 열 고자 합니다.

이 음악회에 북녘의 음악가들을 다음과 같이 초청하오니 음악회에 참가 할 음악가들을 선정하여 그 명단과 연주곡목, 인적사항(이름, 성별, 태어난 곳, 현주소, 현재 직업, 전문분야, 경력등), 천연색 사진(각 3장)을 가능한 한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명 칭: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 ② 장 소: 서울 (예술의 전당 또는 국립극장)
- ③ 공연기간: 1990.12.9 ~ 12.15
- ④ 공연횟수: 2 회 정도
- ⑤ 참가자격: 민족기악 및 민족성악 전문인과 기자
- ⑥ 총 인 원 : 적정 인원 (30 명 내외)
- ⑦ 곡 목 :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곡 또는 작곡된 음악 (정치적인 이념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곡은 제외함)
- ⑧ 경 비 : 북측 참가자들의 이번 음악회 참가를 위한 모든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여행경비는 초청자가 부담함.
- ⑨ 기 타 : 북측 참가자들은 희망에 따라 음악회 기간을 포함하여 약 10일간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고, 이 기간의 여행경비도 초청자가 부담함.

우리는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에 참가하는 귀측 참가인 전원이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하는 것을 바라고, 그들의 체류기간 동안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또한 우리 정부에서 그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임을 알립니다.

1990년 11월 12일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 병 기

다. 북한음악가동맹 중앙위 위원장,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참가 관련
예비접촉 제의 대남편지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 병 기 선생

선생의 11월 12일부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선생께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일념에서 〈90 송년통일 전통음악회〉를 발기하고 북의 음악예술인들을 초청해준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인민들속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시기에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이어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를 가지는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국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했던 력사적인 범민족통일음악회는 비록 국토의 허리에는 분단의 장벽이 가로놓여있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넘지 못할 장벽이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애국의 길에서는 얼마든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인한 민족대화합의 뜻깊은 무대였습니다.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의 음악인들은 서로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살고있는 지역도 같지 않지만 통일의 의지로 함께 가슴들을 불태웠으며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통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양의 극장마다에서 울려퍼진 우리들의 노래가락들은 대결과 불신으로 얼어붙은 겨레의 마음속에 화해와 단합의 따듯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분련의 고통을 가시려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로 힘있게 고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으며 북과 남의 예술인들의 통일행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가 의의 있는 축제로 된다고 여기면서 선생의 발기를 적극 지지환영하며 초청에 기꺼이 호응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번 송년통일음악회에 참가하여 남녘의 예술인들과 함께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동포애의 정을 나누려는 우리 예술인들의 념원을 고려하여 인원을 50명 정도로 하여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나는 우리 예술인들의 <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기 3명으로 되는 예비접촉을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판문점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지었으면 합니다.

황선생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 원 균

1990년 11월 21일

평 양

7. 기 타

가. 북한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위원장, 임수경위문단 파견문제

관련 대남편지

(90.8.2 방송공개)

8.15해방 45돛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겨레의 가슴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뜨거워지고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들이 오는 8.15에 관문점에 모여 성대한 통일축제로서 진행하게 될 력사적인 범민족대회는 우리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힘있게 추동하고있습니다.

7천만의 가슴이 통일열기로 끓어번지고있는 이즈음 우리의 마음은 지난해 8.15에 관문점을 통과하여 남조선으로 돌아간 립수경학생에 대한 생각으로 무거워지고있습니다.

립수경학생은 평양에서 있던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의 대표로 참가하여 축전을 빛내이고 세계에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과시하였으며 겨레의 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관대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어린 녀대학생의 몸으로 대륙을 에돌아 동족이 사는 조국 북반부를 찾아왔다가 분단의 장벽을 넘어 서울로 돌아간 립수경학생의 소행은 참으로 온 민족과 세계의 찬양을 받아야 할 애국적장기였습니다.

<통일의 꽃>으로 민족이 자랑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그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웅당 이번에 8.15범민족대회에도 <전대협>의 대표로 참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우리 조국은 하나라는 목소리를 다시금 높이리라는것

은 의심할바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가혹하고 냉엄한 상태에 있습니다.

림수경학생은 지난해 8월 15일 판문점을 넘어서자마자 <죄인>으로 련행되어 수갑을 차고 부모들과 학우들의 품이 아니라 햇빛도 스며들지 않는 독감방에 갇힌 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혈육이 사는 조국 북반부에 와서 우리의 조국은 하나이며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것이 어찌하여 <죄>가 되어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며 것처럼 모진 고초를 겪어야 한단말입니까.

더우기 옥중에서 근육통과 만성위염에 걸려 신고하면서도 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다 최근에는 부모들과 학우들의 사랑조차 미치기 어려운 서울 남쪽의 수백리 떨어진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되어 정신육체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통일은 애국이라 합니다.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살고저 한 어린 녀학생의 애국을 별로 다스리는것을 동정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는 귀하가 북과 남, 해외에서 림수경학생에 대한 가혹한 처형을 반대하며 그를 석방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세계도처에서 림수경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며 그에게 동정을 표시하여 량심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사실도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림수경학생은 오늘도 수인의 봄으로 철창속에 갇혀있으며 1년이 되도록 재판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옥고를 치르고있습니다.

림수경학생은 비록 감방에 갇혀있지만 제 나라, 제 땅인 북과 남을 자유롭게 래왕하며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문을 열려는 민족의 소원과 지향은 이제 북남 3천리에 굽이치고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도 나아가는 이러한 흐름속에서 언제까지나 립수경학생이 감방에 갇혀있는것을 먼곳에서 보고만있을수 없습니다.

우리 립수경석방투쟁 조선위원회는 립수경학생이 관문심을 통하여 돌아간 지 1년이 되는 8.15를 계기로 청수녀자교도소를 찾아가 그들을 직접 면회하고 위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15에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대표들이 관문심에 모여 통일을 위한 민족적대축제를 거행하고있는 때에 관문심을 넘어 돌아간것이 <최>로 되어 옥고를 겪고있는 그를 찾아가 따뜻한 분안을 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쌓아둔 회포를 나누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노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문단은 남조선에 간 기회에 립수경학생뿐아니라 문규현신부도 찾아가 위로하며 아울러 그들의 부모형제들도 만나 따뜻한 위문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익환목사와 목사의 가족들도 함께 위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문단은 립수경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우리 단체의 성원들과 조선학생위원회 성원들 그리고 립수경학생과 친숙하였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될것이며 적당한 수의 취재기사단이 동행할것입니다.

우리 일행의 방문기간은 8월 14일부터 4박 5일로 하는것이 적합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원회의 위문단파견세의가 인도주의적건지에서 보나 귀하의 7월 20일 <특별발표>에 비추어보나 귀 당국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우리의 동포애석요청에 대한 귀하의 긍정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

하는바입니다.

림수경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 려 연구

1990년 8월 1일 평 양

나.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북경아시아경기대회 공동응원단 구

성 관련 실무접촉 제의 대남편지

(90.9.12 방송공개)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에 보내는 편지.

지금 온겨레는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열망으로 끓어번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세력의 협력하에 진행된 8.15 범민족대회는 참으로 겨레의 통일열기를 한층 더 높여주고 민족의 슬기와 힘을모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해 가는데 크게 기여한 의의깊은 역사적인 통일 대축제였습니다.

8.15 범민족대회를 달가와 하지않는 반통일 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자리는 같이하지는 못하였지만 귀 연합은 항상 우리와 통일의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귀 추진본부의 의사도 함께담아 채택한 범민족대회의 결의사항을 실천에 옮겨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 90년대에 기어이 통일의 문을 열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귀 추진본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중국의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제 11차 아시아 경기대회 때에 북과 남의 인민들이 공동 응원단을 구성하여 응원을 같이할데 대한 새로운 발기를 한 것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1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북남 체육선수들을 북과 남의 인민들이 공동으로 응원하면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민족의 슬기를 더 높이 발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민족은 하나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 추진본부의 제의에 전적인 찬동을 표시하면서 제11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북남 선수들을 공동으로 응원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오는 15일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와 남측 추진본부에서 각기 선발한 3명의 대표들로 실무접촉을 가실것을 정중히 제의하는바 입니다.

우리는 귀 추진본부 대표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위하여 반드시 관문점에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윤기복

1990. 9.11 평양

다. 북한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연·고 민족해방제」 참가 관련 실무

대표접촉 동의 대남편지

(90.9.24 방송공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앞.

사랑하는 연·고의 학우들, 조선 학생위원회는 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애국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열과 정을 다바쳐 싸워나가고 있는 그대들과 남녘의 전체 학우들에게 뜨거운 형제적 인사를 전하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세월의 연륜을 거둬온 민족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 겨레의 통일열기가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10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연·고 민족해방제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에 있는 연·고 출신 선배들과 김일성 종합대학 학우들을 초청한데 대하여 우리들은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대들의 초청과 제의에 흔쾌히 동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통일운동의 주역이 되어 시대와 민족의 부름에 언제나 앞장서온 연·고의 학우들이 민주와 통일열기로 차넘치는 귀교의 광장으로 북녘의 학우들을 부른 것은 정의에 투철하고 통일에 헌신하려는 그대들의 애국충정의 뚜렷한 발현으로서 겨레와 북과남 전체 청년학생들의 환영을 받을 장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연·고 총학생회의 초청에 접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물론 공화국 북반부 전체 청년학생들의 마음은 벌써 그대들과의 상봉의 광장으로, 그림던 남녘의 학우들과 얼싸안고 감격에 목메일 그날에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과남의 청년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자주, 민주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세대들의 어깨위에 지어신 책무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대방과 적수가 따로없는 친선의 축구싱가를 하게된다면 반세기 가까이 갈라져 살아온 우리민족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온민족의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있게 고무 추종하게 될것입니다.

남녘의 학우들과 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언제나 그대들의 투쟁을 애국과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높이 평가해온 조선학생위원회는 그대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연·고 출신 선배대표단과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북반부 학생 대표단을 서울에 파견할 것이며 그대들의 제안대로 연·고 민족해방제 기간에 통일문제 토론회와 친선 축구싱가를 하는데도 참가하게 할 것입니다.

뜻이같고 마음이 통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는데는 그어떤 복잡한 절차도 필요치 않을 것이며 그대들과의 만남을 달가와하지 않는 소수분열주의자들의 어떤 방해새동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 학생위원회는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대표 회담을 하자는 귀단체 제의에 동의하면서 5명으로 구성된 우리측 실무회담대표단을 9월 25일 오전 11시에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기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990년 9월 24일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 현 덕

평 양

라. 북한 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교조」의 「범민족
통일교육자대회」개최제의 관련 대남편지

(90.12.14 방송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운영규 귀하

우리는 얼마전에 귀조직이 1991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 교육자들이 참가하는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그와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와 만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분열주의 세력의 탄압이 거듭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귀 단체가 이번에 범민족통일교육자들의 소집을 발기한데 대하여 우리는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환영하는 바입니다.

1990년대를 통일의 연대로 빛내이려는 염원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가 합쳐지고 통일운동이 북과 남 해외에서 거족적인 대행진으로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 우리교육자들이 자주적인 민족교육의 발전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아 서로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로 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는 비록 북과 남이 서로 갈라져 살고있지만 다같이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키우며 기어이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지닌 교육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나 지식을 파는 지성인이 아니며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로 대중을 깨우치고 선도해야 할 시대의 선각자들입니다.

북과 남의 교육자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며 민족적으로 단합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서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로의 만남을 약속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투쟁으로 만남의 길, 통일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귀감으로 되어야 할 우리 교육자들이 앉아서 그들의 장한 모습을 보고만 있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단체가 발기한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남 해외동포 교육자들의 뜻과 힘을 합치는 중대한 계기로 될수 있을것이라고 믿으면서 언제 어느때 어떤 장소에서든지 귀단체 대표들과 기꺼이 만날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정의로 가는 길이 순탄할수 없듯이 이땅에 분열주의 세력이 남아있는 오늘의 형편에서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만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벌써 북남사이에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싫어하는 분열세력은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 실현에 차단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어떤 난관에 접쌓여도 전교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을 통하여 우리들의 만남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귀단체의 어려운 환동조건을 고려하여 심축시일과 장소는 귀단체에 일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교육대표자들의 심축이 실현되면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통일의 길에서 힘을 합쳐 나가기 위한 제반문제들에 대하여 훌륭한 합의를 이룩하게 되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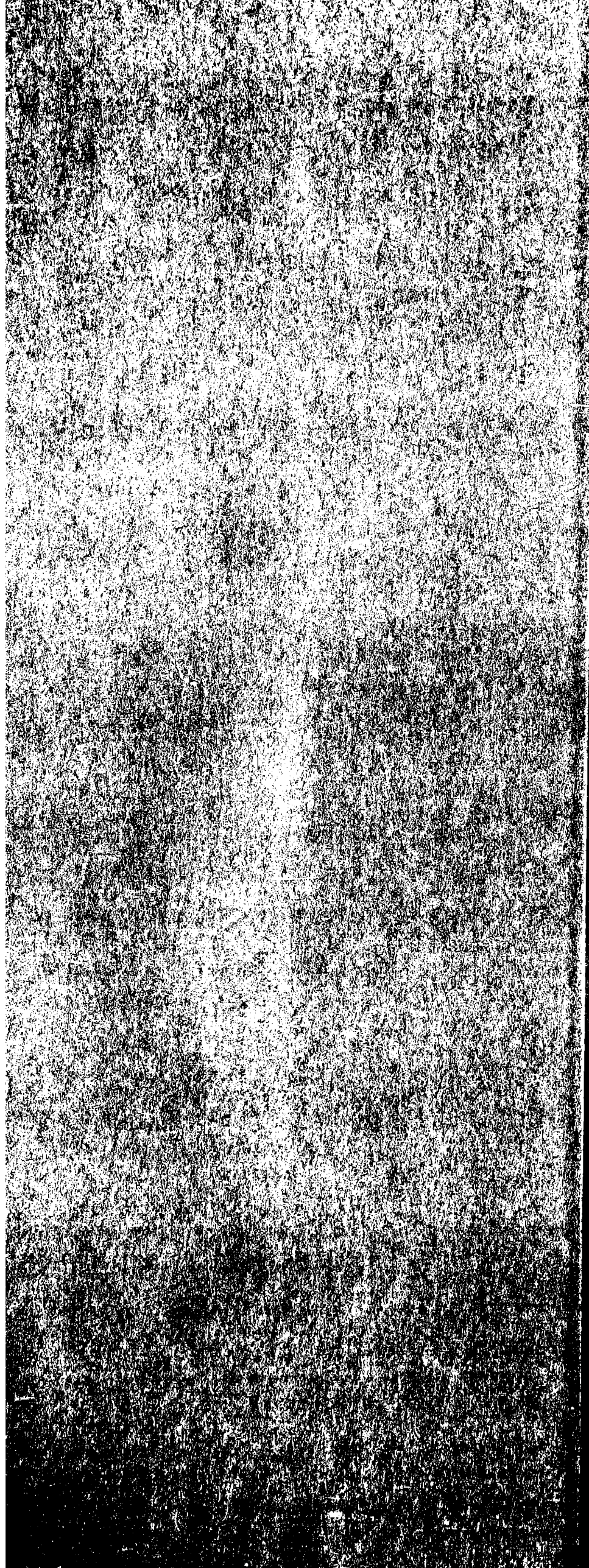
참다운 민족교육의 실현과 조국통일을 위한 귀하의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 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금순

1990년 12월 14일

Ⅱ. 남북직통전화 통지문



쌍방 직통전화통지문 교환 실적

| 고위급 회담 | | 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 | 민족 대교류 | 범민족 대회 | 체육 회담 | 적십자 회담 | 한필성·한필화상봉 | 통일 음악회 | 기 타 | | | | |
|--------|------|---------------|----------------|--------|-------|--------|-----------|--------|---------------|--------|--------|-----------|----|
| 비담 | 본 회담 | | | | | | | | IPU 총회 단일 대표단 | 연·고민족제 | 통일 학술제 | 통일 교육자 대회 | 실선 |
| 4 | 16 | 8 | 8 | 5 | 5 | 5 | 5 | 5 | 1 | 1 | 1 | 1 | |
| 5 | 14 | 12 | 5 (방송 공개 1) | 8 | 6 | 7 | 6 | 4 | 1 | 2 | 1 | 1 | 1 |
| 9 | 30 | 20 | 13 | 13 | 11 | 12 | 11 | 9 | 2 | 3 | 2 | 2 | 1 |

1.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 제 11차 준비접촉 개최 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2.21 (수) 10:07 ~ 10:2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강 덕 순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2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 전 남 칠 귀하

나는 귀측 대표단이 지난 2월 8일 남북회담 북측 대표단 연합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90 합동훈련이 진행되는 전기간 관문점 회담장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는 2월 22일(목) 갖기로 합의한 남북국회회담 제 11

차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측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우리들의 준비접촉은 본회담의 형식과 일부 의제문제를 조금만 더 절충하면 완전 타결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지난 제 10차 접촉에서 회담외적 문제만을 집중 거론하면서 실무절차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없이 회담진전을 가로막았으며 이번에는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예정된 제 11차 준비접촉을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바라는 7천만 겨레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없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어목적의 평화유지훈련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며 회담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기간중에 여러 회담들이 열렸던 사실이 이를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준비접촉을 끝내 중단시킨다면 애당초 남북국회회담의 성사에는 뜻이 없었다는 내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적 요구로 보나 온겨레의 여망으로 보나 남북국회회담은 하루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회담과 결부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시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 11차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1990년 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남북대화 재개 관련 전봉문

- 일 시 : 1990. 6.13 (수) 10:02 ~ 10:52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과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시문을 보내니 본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6월 13일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귀하

지금 온 거래는 중단된 북남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되어 통일위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기를 한결같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해내외 인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반영하여 얼마전에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1차 회의에서는 북남사이의 대화를 재개하며 발전시킬 데 대한 획기적인 방침이 천명되었으며, 뒤이어 지난 5월 31일에 북남 회담 북측대표단들은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대화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다같이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중단된 북남대화들을 시급히 재개하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 용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와같은 태도 표시에 귀측은 응당 선의로 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귀측 당국은 북남 쌍방의 대화노력이 절실한 이때에 오히려 동족사이의 대화를 회피하고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는 반대화·반통일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최근 귀측 당국자가 우리의 내부분제를 밖으로 들고 다니며 그 누구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달라느니, 남북정상회담과 UN단독가입을 성사시켜 달라느니 하고 청탁, 구걸하는 식으로 분별없이 처신한 것은 명백히 우리들의 주체적인 통일노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며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도 밝혀져 있는 바와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분제로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귀측 당국자도 최근 시기에 와서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자주」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원칙도, 자신이 한 말도 다

뒤집어 엮고 민족내부문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어느 한쪽으로도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대행위이며, 동족 사이의 대화를 안중에 두지않는 반민족적 분열행위라고 하시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당국의 이러한 처사를 북남대화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세의 발현으로서 자립적인 대화 상대로서의 귀측 권능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으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더욱이 귀측 당국자가 청탁하였다고 하는 문제의 내용들은 어느 것이나 통일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 무슨 개방·개혁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성과적으로, 그것도 철저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를 개방하였으며, 지금도 우리식대로 사회를 계속 개조하며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금 누구나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일떠 세운 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습니다.

현시기 개방과 개혁을 실시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입니다.

귀 당국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분단의 「콘크리트장벽」을 그대로 두고 우리와의 대화와 접촉을 바라는 단체·인사들의 북행 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어는 넓은 대결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회둘러 그들을 마구 체포·투옥하며 처형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 당국이 그 누구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것이 체질화되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귀측 당국의 망상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측 당국자는 이번 외국 방문기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줄 것까지 요청하였는 데, 그것은 그 누구의 권고가 없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최고위급회담은 우리측이 발기하고 추진시켜온 것이며 지금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고위급이 만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성숙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일방이 분열주의적 입장에서 반공·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조건에서는 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될 수 없고, 설사 그것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어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최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대신에 오히려 상대방의 성실한 제의를 외면하고, 밖에다 대고 그것을 청탁하는 것은 진실로 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통일문제를 민족 주체적인 힘으로 풀어 나가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측이 실지로 최고위급회담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켜 달라고 남을 찾아다니며 구걸할 것이 아니라 나라안의 동족을 볼 줄 알고 회담에 장애로 되는 반공·대결정책과 민족분열 영구화정책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귀 당국자가 UN 가입문제를 여기 저기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UN 단독가입이나 UN 동시가입이 현 분열상태를 합법화하고 고정화하여 두개 조선을 만들기 위한 것임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귀측도 알고 있는 바와같이 최근 우리는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UN에 들어가려 한다면 제각기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일위업에 이롭게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갈데 대한 입장을 밝히었으며 우리의 이 새로운 발기는 지금 내외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귀측의 당국자가 UN가입문제를 들고 다닌 것은 귀측의 통일의사를 의문시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점으로 보아 귀측 당국자의 행위가 재개를 앞둔 북남대화과 나라의 평화통일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귀 당국이 어느 때에 가서나 오늘의 사대주의 병에서 벗어나고 자주통일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귀측 대표단들이 우선 조성된 사태에 대한 자기의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두개 조선을 위한 분열대화를 바라는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동족사이의 대결을 조상하면서 계속 사대주의 길로 나가려는 것인지 이 근본문제를 명백히 함이 없이는 참으로 결실있는 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재개를 앞두고 귀 대표단들은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대화에 대한 성의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 대표단들의 태도를 지켜 볼 것입니다.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금 철

1990년 6월 13일

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제 11차 준비접촉 재개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6.20 (수) 10:00 ~ 10:19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과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6월 20일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남측 수석대표 채 문 식 귀하

반세기 가까운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북에

도 남에게 다같이 미룰수 없는 시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이 최근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두개
조선정책을 계속 추구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나라의 통일에 역행하는 행
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시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월 13일 북남회담 북측대표단들은 전화통지문을 통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는 귀측 당국사의 행
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귀측의 근본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통지문을 보낸지 1주일되는 오늘까지 귀측은 납득할만한 회
답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도리어 억측과 궤변으로 대화의 무기연기니 부정
의니 하고 우리측을 걸고 든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사대주의적이며 분열주의적인 반민족 행위가 북과 남의 대
화와 나라의 통일위업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한 앞으로도 계속
귀측에 반성을 촉구하며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입
니다.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대화에 대한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대화에 장애로 되는 일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귀측은 이미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또다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사
실상 한 두번만 더 마주앉으면 본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우리의 예
비접촉들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온겨레는 지금도 귀측의 이와 같은 행동에 실망을 감치 못하면서 북남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고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제반문제들
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불론 온 겨레의 이 절실한 염원과 기대에 맞게 우리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옳은 입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귀측의 근본입장과 자세에 아직은 문제가 있지만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귀측에 의해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6월 28일(목)에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 7차 예비회담을 가질 것과 이어 7월 12일(목)에 북남 국회의원들이 제 11차 판문점 상봉을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금 철

1990년 6월 20일

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 제 11차 준비접촉일자 수정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7. 5 (목) 10:01 ~ 10:11 .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 전 금 철 귀하

귀하의 6월 20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5개월 동안이나 열리지 못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재개하자는 귀하의 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측은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회담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번에 재개되는 접촉에서는 우리 대표단 본연의 임무에 맞게 생산적인 토의가 진행되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현재 개최중인 우리측의 제 150회 국회(임시회) 회기가 7월 17일(화)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남북국회회담 제 11차 준비접촉을 7월 19일(목) 오전 10시 귀측지역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 7월 5일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마.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제 11차 준비접촉 개최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7. 7 (토) 10:00 ~ 10:07
- 통화자 : (남) 유 중 렬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국회 합동회의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 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귀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북남국회 합동회의를 위한 쌍방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귀하

우리는 북남국회 합동회의를 위한 쌍방 국회의원들의 제 11차 판문점 상봉을 위해 오는 7월 19일 (목)에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 나갈 것입니다.

1990년 7월 7일

북남국회 합동회의를 위한 쌍방국회의원들의

관분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남 칠

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 대표 교체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7.16 (월) 10:01 ~ 10:09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 전 남 칠 귀하

나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대표단의 김봉호 대표와 이희일 대

표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대표 : 조 세 형 (국회의원, 평화민주당)

대표 : 김 용 채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1990년 7월 16일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사.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대표 교체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7.17 (화) 10:32 ~ 10:38
- 통화자 : (남) 오 세 응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우리측 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17일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관문점 상봉 우리측 안병수 대표 대신에 최고 인민회의 남순희 대의원이 대표로 나가게 됨을 알립니다.

북남국회의원들의 관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남 철

1990년 7월 17일

아.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장, 제 11 차 준비접촉 무기연기 통
보 전통문

- 일 시 : 1990. 7.17 (화) 11:04 ~ 11:18
- 통화자 : (남) 오 세 응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관문점 상봉 우리측 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
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17일

북남국회의원들의 관문점 상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채 문 식 귀하

우리는 지난 북남국회의원들의 제 11 차 상봉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중단되었던 판문점 상봉이 늦게나마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귀 국회안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태는 대화 일방으로 되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귀 국회에서 감행된 여당의 횡포는 지금 남조선에서 광범한 사회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지어 야당 의원들의 의원직 전면 사퇴라는 심각한 위기 국면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에서는 귀 국회가 해산 직전에 처해 있다고도 하며 총선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는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귀추를 알 수 없는 귀 국회의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북남 국회의원들 사이의 정상적인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못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귀측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는 7월 19일로 예정된 북남 국회의원들의 제 11차 판문점 상봉을 부득이 당분간 연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귀하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달정도 기한을 두고 귀 국회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음번 상봉날짜를 통지할 것입니다.

북남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 전 금 철

1990년 7월 17일

자.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 제 11 차 준비접촉 호응 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7.18 (수) 10:36 ~ 10:58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단장 전 금 천 귀하

나는 귀측 대표단이 오는 7월 19일 (목)에 갖기로 쌍방이 합의한 남북국회회담 제 11 차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할 것을 통보해 온데 대해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온겨레는 남북 쌍방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타결을 본 고무적인 상황속에서 남북국회회담의 성사에 대해 고 어는

때보다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개방과 협력을 지향해 나가고 있으며 한반도에도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의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시대적 상황과 온겨레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같이 우리들의 준비접촉은 본회담의 형식과 일부 의제문제만을 미해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인정과 존중의 정신아래 성실한 대화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화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더구나 남북간의 합의사항인 회담일자의 준수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 예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같은 귀측의 처사는 그동안 인내와 자제로 일관해 온 우리측의 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이는 전국민의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남북국회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한 이래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왔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도 지난 2월 22일로 합의된 제 11차 준비접촉을 5개월이나 중단시킨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이같은 귀측의 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결코 올바른 대화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귀측이 우리 국내정치문제를 두고 이를 터무니없이 왜곡·비방하면서 대화연기의 구실로 내세운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

며 귀측의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측이 이번 준비접촉을 꼭 연기해야 할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귀측 내부에 어떤 사정이 없다면 합의된 회담일사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자세를 버리고 하루속히 제11차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0년 7월 18일

대한민국 국회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채문식

2.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

가.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수석대표, 제 7차 예비회담 호응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3. 6 (화) 15:04 ~ 15:21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귀하

나는 대한민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준 귀하

남북 쌍방은 지난번 남북고위급회담 제 6차 예비회담에서 제 7차 예비회담을 3월 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성명」을 통해 부당한

구실을 앞세워 대화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제 7차 예비회담은 쌍방이 합의한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귀측의 이와같은 태도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남북간에는 책임있는 고위당국자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어떤 구실이나 이유도 회담을 기피하는 명분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휴전선 지하를 관통하는 귀측의 기습남침용 땅굴이 또 다시 발견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겨레는 물론 온세계의 평화애호인들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콘크리트 장벽칠거라는 허구적 주장과 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 등을 내세워 진행중인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더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지닐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귀측 스스로가 남북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 추세가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간에 이처럼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역사의 허물을 기억하는 일로서 온겨레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하루빨리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로 전환하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남북고위급회담 제 7차 예비회담의 개최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1990년 3월 6일

대한민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

(2) 북측 대표단장, 제 7차 예비회담 개최 관련 조치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3. 9 (금) 10:35 ~ 11:00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으로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리 성 호

북남 고위급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난 제 6차 회담때에 귀측이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한 조건에서 3월 7일 회담에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난 2월 8일 북남회담 북측대표단들의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반대하는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기간 귀측과 마주앉아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특

히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귀측이 진실로 대화와 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대화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범죄적인 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거래의 임원을 외면하고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끝끝내 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갔으며 좋게 신척되던 북남대화들을 일시에 중단상태에 몰아넣고 우리의 제 7차 예비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귀측이 외세와 손잡고 대화상대방인 동족을 반대하여 총포탄을 쏘아대면서 화해와 협력, 대화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기만하고 자기 양심마저 속이는 처사로서 온겨레와 세계의 면전에서 대결과 긴장격화, 대화 중단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철면피한 행위라고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귀측은 지금 자유래 왕과 전면개방의 길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북남대화의 운명을 좌우하는 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대신 허황한 땅굴설을 들고나와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 버릴데 대한 내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며 대화를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얕은 수에 불과합니다.

귀측이 말하는 것처럼 참말로 분계선 남측지역에 콘크리트장벽이 없다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넘겨주려는 콘크리트장벽을 찍은 영화필름, 녹화테이프, 사진자료들을 받아가지 못하며 참관단조차 보내오지 못합니까? 귀측이 우

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콘크리트장벽이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측은 온겨레와 세상사람들을 더는 우롱하지 말고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고 민족의 수치인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전화통지문에서 들고나온 허황한 땅굴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위기가 조성될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내외의 여론을 떠돌이로 돌리는 귀측의 상투적 수법의 재판으로서 전혀 사실적 근거가 없는 자작극인 것입니다.

땅굴설의 고의성과 최근 땅굴설을 들고나온 귀측의 진의도에 대해서는 3월 7일부 우리의 인민무력부 대변인성명에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귀측이 실재하고 있는 콘크리트장벽은 없다고 하고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정당화하며 모략적인 땅굴설까지 조작하면서 화해와 협력, 통일을 가로막아 보려고 하고 있지만 90년대에 기어이 통일을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열의와 확고한 의지에 넘쳐있는 온민족이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감단계에 이른 우리의 예비회담은 하루빨리 결속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본회담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합니다.

나는 귀측이 이제라도 내외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대화·반통일적인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과 반공대결 소동을 당장 중지함으로써 우리의 제 7차 예비회담이 빠른 시일안에 열릴수 있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남 고위급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준

1990년 3월 9일

(3) 우리측 수석대표, 제 7차 예비회담일자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4.27 (금) 10:03 ~ 10:2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4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준 귀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면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정세는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앞당기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남북 쌍방 당국은 세계적 조류와 민족적 여망에 부응하여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이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쌍방은 작년이래 여섯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을 가진 결과, 본회담의 명칭, 대표단 구성, 회담개최 시기 및 장소 등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를 이룩했으며 다만 의제표기 순서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곧 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개최기로 합의했던 제 7차 예비회담이 귀측의 일방적인 회담불참선언으로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0년대를 맞이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소망은 남북간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민족적 신뢰와 화해를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남과 북을 가릴 것없이 우리 민족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요구이며 이같은 민족적 여망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북 쌍방은 어떤 이유로도 더이상 대화를 중단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광복 45주년이 되는 금년 8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제 7차 예비회담을 오는 5월 22일(화)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4월 27일

대한민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송한호

(4) 북측 대표단장, 제 7차 예비회담일자 추후 통보 관련 전통문

- 일시 : 1990. 5.14 (월) 10:05 ~ 10:30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정영수
- 내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나는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0년 5월 14일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한호 귀하

귀하의 4월 27일부 전화통지문은 남후 우리의 회담선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하가 전화통지문에서 사실과 맞지 않게 적반하장기으로 3월 7일

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제 7 차 예비회담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한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듯이 주장해 나선데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세계의 양심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우리의 회담이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귀측이 시대착오적인 대결과 승공의 망상에 사로잡혀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극히 도발적인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선데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아끼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미 지난 제 6 차 예비회담때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귀측에 요구하였으며 귀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7 차 예비회담을 3월 7일에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귀측이 조금이라도 대화에 관심이 있고 통일을 이룩하려는 초보적인 의지라도 가지고 있다면 응당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제 7 차 예비회담에 응해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제 6 차 예비회담이 있는지 1 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도 해오지 않았으며 끝끝내 회담의 중단도 아랑곳 하지않고 합동군사연습을 본격적으로 강행하여 나섰습니다.

외세와 합세하여 동족인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소동을 벌리는 것 자체가 대화를 부정하는 행위라는데 대하여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반성할 대신 오히려 그 누구의 책임을 운운해 나선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것과 같은 행위이며,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대화를 재개하여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

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급선부인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대화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지금 온 겨레는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고 통일의 시금석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는 실속있는 대화를 함으로써 90년대의 첫해인 올해에 어떻게 하나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큰 선전을 이룩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귀측은 이제 온 민족의 압원과 기대에 역행하여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게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진심으로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려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이러한 성실한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의 회담을 재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제 7차 예비회담 날짜와 관련하여서는 차후에 우리측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짜를 가급적으로 빨리 귀측에 통지할 것입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백 남 선

1990년 5월 14일

(5) 북측 대표단장, 남북대화 재개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6.13 (수) 10:02 ~ 10:52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과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6월 13일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지금 온 거래는 중단된 북남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되어 통일위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되기를 한결같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해내외 인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반영하여 얼마전에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는 북남사이의 대화를 재개하며 발전시 길데 대한 획기적인 방침이 천명되었으며, 뒤이어 지난 5월 31일에 북남 회담 북측대표단들은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대화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다같이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임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중단된 북남대화들을 시급히 재개하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성의를 다할 용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와같은 태도 표시에 귀측은 웅당 선의로 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귀측 당국은 북남 쌍방의 대화노력이 선실한 이때에 오히려 동족사이의 대화를 회피하고 통일을 열망하는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주는 반대화·반통일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최근 귀측 당국자가 우리의 내부분제를 밖으로 들고다니며 그 누구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달라느니, 남북정상회담과 UN 단독가입을 성사시켜 달라느니 하고 청탁, 구걸하는 식으로 분별없이 처신한 것은 명백히 우리들의 주체적인 통일노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누누이 강조하여 왔으며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도 밝혀져 있는 바와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내부분제로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귀측 당국자도 최근 시기에 와서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자주」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원칙도, 자신이 한 말도 다 뒤집어 엮고 민족내부분제를 남에게 의존하여 어느 한쪽으로만 끌고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민족의 상례를 위태롭게 하는 사대행위이며, 동족사이의 대화를 안중에 두지않는 반민족적 분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당국의 이러한 처사를 북남대화에 대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세의 발현으로서 자립적인 대화 상대로서의 귀측 권능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으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더욱이 귀측 당국자가 청탁하였다고 하는 문제의 내용들은 어느 것이나 통일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 무슨 개방·개혁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성과적으로, 그것도 철저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를 개방하였으며, 지금도 우리식대로 사회를 계속 개조하여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시금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일떠 세운 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습니다.

현시기 개방과 개혁을 실시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입니다.

귀 당국은 말로는 북남 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분단의 「콘크리트장벽」을 그대로 두고 우리와의 대화와 접촉을 바라는 단체·인사들의 북행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지어는 낡은 대결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그들을 마구 체포·투옥하며 처형하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 당국이 그 누구를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것이 체실화되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귀측 당국의 망상은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측 당국자는 이번 외국 방문기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줄 것까지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그 누구의 권고가 없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최고위급회담은 우리측이 발기하고 추진시켜온 것이며 지금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고위급이 만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빨리 성숙시키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일방이 분일주의적 입장에서 반공·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조건에서는 최고위급회담이 마련될 수 없고, 실사 그것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어질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최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대신에 오히려 상대방의 성실한 제의를 외면하고, 밖에서 대고 그것을 청탁하는 것은 진실로 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으며 통일문제를 민족 주체적인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귀측이 실지로 최고위급회담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실현시키 달라고 남을 찾아다니며 구걸할 것이 아니라 나라안의 동족을 불러 모으고 회담에 장애로 되는 반공·대결정책과 민족분열 영구화정책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귀 당국자가 UN 가입문제를 여기 저기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UN 단독가입이나 UN 동시가입이 현 분일상태를 합법화하고 고정화하여 두개 조선을 만들기 위한 것임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귀측도 알고 있는 바와같이 최근 우리는 북과 남이 통일이전에 UN에 들어가려 한다면 제각기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일위업에 이롭게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갈데 대한 입장을 밝히었으며 우리의 이 새로운 발기는 지금 내외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때에 귀측의 당국자가 UN가입문제를 들고 다닌것은 귀측의 통일의를 의문시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점으로 보아 귀측 당국자의 행위가 재개를 앞둔 북남대화와 나라의 평화통일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귀 당국이 어느때에 가거나 오늘의 사대주의 병에서 벗어나고 자주통일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 시점에서 귀측 대표단들이 우선 조성된 사태에 대한 자기의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두개 조선을 위한 분열대화를 바라는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여 민족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동족사이의 대결을 조장하면서 계속 사대주의 길로 나가려는 것인지 이 근본문제를 명백히 함이 없이는 참으로 결실있는 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재개를 앞두고 귀 대표단들은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대화에 대한 성의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 대표단들의 태도를 지켜 볼 것입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백 남 준

1990년 6월 13일

(6) 북측 대표단장, 제 7 차 예비회담 재개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6.20 (수) 10:00 ~ 10:19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국회의원들의 판문점 상봉 북측대표단 단장과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6월 20일

북남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남측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반세기 가까운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북에도 남에도 다같이 미룰수 없는 지상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이 최근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두개조선정책을 계속 추구하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나라의 통일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월 13일 북남회담 북측대표단들의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는 귀측 당국자의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귀측의 근본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통지문을 보낸지 1주일되는 오늘까지 귀측은 넘독할만한 회답조차 보내지 않으면서 도리어 억측과 궤변으로 대화의 무기연기나 무성의니 하고 우리측을 걸고 든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사대주의적이며 분열주의적인 반민족 행위가 북과 남의 대화와 나라의 통일위업에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는한 앞으로도 계속

귀측에 반성을 촉구하며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대화에 대한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대화에 장애로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측은 이미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또다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한 두번만 더 마주 앉으면 본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우리의 예비접촉들이 일시에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온겨레는 지금도 귀측의 이와 같은 행동에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북남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고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물론 온 겨레의 이 절실한 염원과 기대에 맞게 우리와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옳은 입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귀측의 근본입장과 자세에 아직은 문제가 있지만 대화를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귀측에 의해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오는 6월 28일 (목)에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제 7차 예비회담을 가질 것과 이어 7월 12일 (목)에 북남 국회의원들의 제 11차 판문점 상봉을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백 남 순

1990년 6월 20일

(7) 우리측 수석대표, 제 7차 예비회담 개최일자 수정세의 선통문

- 일 시 : 1990. 6.25 (월) 10:05 ~ 10:1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6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순 귀하

남북고위급회담 제 7차 예비회담을 오는 6월 28일에 개최하고자 하는 6월 20일자 귀하의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귀측이 급년초이래 중단상태에 놓여있던 남북대화의 재개에 호응해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편으로 우리측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당한 외교활동을 귀측이 대화와 연관시키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상외교활동으로 말하면 이는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적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것이 대화의 진전을 가로막을 이유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회담 대표단은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적 소망에 부응하기 위해 맡겨진 임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측 사정으로 제 7차 예비회담을 오는 7월 3일 (화)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6월 25일

대한민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송한호

(8) 북측 대표단장, 제 7차 예비회담 개최일자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6.26 (화) 10:02 ~ 10:06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정영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6월 26일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7차 예비회담을 위해 오는 7월 3일에 우리측 대표단이 판문점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백 남 순

1990년 6월 26일

(9) 우리측 수석대표, 대표교체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6.29 (금) 10:04 ~ 10:10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이 명 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6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단장 백 남 준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우리측 대표단의 염홍철 대표와 김삼훈 대표가 다음과 같이 교체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대 표 : 최 선 의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대 표 : 신 성 오 (외무부 국장)

1990년 6월 29일

대 한 민 국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나.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통신·항공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8. 7(화) 10:07 ~ 10:16
- 통화자 : (남) 이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귀하

나는 지난 7월 12일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 진행과 관련한 통신 및 항공기술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통신기술실무자 3명과 항공기술실무자 3명을 1990년 8월 8일 오전 10:00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

1990년 8월 7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2) 북한 정무원총리,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임명통보

및 통신·항공 실무접촉 연기요청 전통문

- 일시 : 1990. 8. 7(화) 16:23 ~ 16:33
- 통화자 : (남) 김광호 (북) 정영수
- 내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0년 8월 7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 7월 26일에 있는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실무대표들의 접촉에서는 쌍방대표단의 책임 연락원 명단을 호상

통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으로 최봉준 동지를 임명하였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귀하의 전화통지문에서 언급한 쌍방 실무자 접촉문제를 비롯하여 제 1차 북남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책임연락원 명단을 교환한 다음 그들이 필요한 실무자들을 동행하고 적절한 날에 서로 만나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귀측에서 책임연락원 명단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의 여유도 없이 실무자들이 내일 만나자고 한 것은 관례에 없는 무리한 일이고 성실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쌍방 책임연락원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접촉을 다른 날짜를 상하여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1990년 8월 7일

(3)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임명통보

및 통신·항공 실무접촉 재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8. 8(수) 16:31 ~ 16:38
- 통화자 : (남) 김 기 응 (북) 이 인 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귀하

귀하의 8월 7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의 연락업무를 김용환책임연락관이 수행하게 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나는 쌍방 책임연락관 인솔하에 통신관계자 각 3명과 항공관계자 각 3명이 참가하는 실무접촉을 1990년 8월 10일(금)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90년 8월 8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4)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통신·항공 실무접촉 재연기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8. 9 (목) 16:33 ~ 16:39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9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선생

나는 귀측 전화통지문에서 언급한 통신관계를 비롯한 세부문제를 협의하
기 위한 실무자접촉과 관련하여 8월 15일 후에 적합한 날짜를 성하여
통지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 봉 춘

1990년 8월 9일

(5)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전봉문

○ 일 시 : 1990. 8.21 (화) 10:05 ~ 10: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21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서울에서 열리게 될 북남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8월 23일(목)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책임연락원들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년 8월 21일

(6)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통신·항공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8.21 (화) 11:10 ~ 11:16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귀하의 8월 21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하여 통신 및 항공관계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통신관계자 3명과 항공관계자 3명을 대동하고 8월 23
일 (목)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갈 것입니다.

1990년 8월 21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7)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우선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8.22 (수) 15:03 ~ 15: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22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선생의 8월 21일부 전화통지문에 유의하면서 북남고위급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우선 쌍방 책임연락원들 사이의 접촉을 8월 23일 (목)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희망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년 8월 22일

(8)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십족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8.22 (수) 16:16 ~ 16:21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귀하의 8월 22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1990년 8월 23일 (목) 오후 3시 관문집 중
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갈 것입니다.

1990년 8월 22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9)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북측대표단 체류일정 협의 관련 쌍방 책임
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8.25 (토) 10:51 ~ 11:0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유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오는 8월 28일 (화)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서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동 접촉에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참가하는 귀측
대표단의 체류일정을 협의하며, 지난 8월 23일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귀
측이 제기한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것입니다.

1990년 8월 25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10)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논의 선봉문

- 일 시 : 1990. 8.27 (월) 10:03 ~ 10:07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27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선생

나는 선생의 요청에 따라 1990년 8월 28일 (화)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갈 것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최 봉 준

1990년 8월 27일

(11)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 참가 수행기자 변동
사항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9. 1 (토) 11:12 ~ 11:20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1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제 1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해 서울에 나가는 우리측 대표단을 수
행하게 될 기자단 성원중에서 서동범 기자가 사정에 의하여 나가지 못하
게 되며 아울러 이번 우리측 기자단에 총련의 조선신보사 기자들인 강두
환, 문광우, 엄정온이 새로 포함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년 9월 1일

(12)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북측수행기자 변동사항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년 9월 1일 (토) 14:03 ~ 14: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심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십사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현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귀측이 9월 1일 추가로 통보한 수행기자 3명의 사진이 첨부된 명단을 9월 3일 (월)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연락관간의 접촉을 통해 우리측에 넘겨주기 바랍니다.

1990년 9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13)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10. 5 (금) 14:04 ~ 14: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0월 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1990년 10월 16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 2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측 대표단의 체류일정을 포함한 실무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8일 (월) 오전 10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일각』에서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1990년 10월 5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14)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일자 수정제의 전동문

- 일 시 : 1990. 10. 6 (토) 10:04 ~ 10:08 **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0월 6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귀하

10월 5일부 귀하의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정으로 오는 10월 9일 (화)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지역 『통
일각』에서 쌍방 책임연락원의 접촉을 가진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년 10월 6일

(15)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10. 8 (월) 10:25 ~ 10:30
- 통화자 : (남) 박 환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0월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귀하의 10월 6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쌍방 책임연락관접촉을 10월 9일에 갖자는 귀하의 수정제의에 동의합니다.

1990년 10월 8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16)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일사 확인 진통문

- 일 시 : 1990.11. 1 (목) 15:03 ~ 15: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명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강영훈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귀측 대표단 단장인 연형묵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귀하

남북고위급회담 쌍방대표단은 지난번 평양에서 개최된 제 2 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0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서울에서 갖기로 잠정합의한 바 있습니다.

나는 쌍방이 잠정합의한 이 날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1990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990년 11월 1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17) 북한 정무원총리, 제 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11.12 (월) 15:22 ~ 15:4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동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
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1월 12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측이 지난 11월 1일부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제 3차 북남고위

급회담을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가질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동의를 표시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2 차 회담이 있는 이후 근 2개월만에 열리게 되는 제 3 차 회담에서는 쌍방의 제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에 기초하여 문제토의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다가오는 제 3 차 회담의 성과를 위하여 쌍방 대표들의 예비회담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예비회담을 오는 11월 16일 (금)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지며 여기에는 북남고위급회담 대표 2명과 책임연락원, 그 밖에 수원 2명을 참가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인 절차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쌍방 책임연락원 접촉을 오는 11월 13일 (화) 오후 3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연 형 북

1990년 11월 12일

(18)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신청문

- 일 시 : 1990.11.13 (화) 10:30 ~ 10:3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최 봉 춘 귀하

나는 귀측의 11월 12일자 전화통지문과 관련하여 귀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13일 (화) 오후 3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일각』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년 11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19)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11.16 (금) 10:07 ~ 10:12
- 통화자 : (남) 김 기 응 (북) 이 철 영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신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오는 11월 17일 (토)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에서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합니다.

1990년 11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20)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11.16 (금) 15:03 ~ 15:07

○ 통화자 : (남) 김 기 용 (북) 이 철 영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1월 16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귀하

나는 오는 11월 17일 (토)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에서 쌍방 책임연락원 접촉을 가질 데 대한 귀측의 제의에 동의하는 바
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년 11월 16일

(21)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
촉 참가 대표명단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11.20 (화) 10:03 ~ 10:10

○ 통화자 : (남) 김 기 응 (북) 김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강영준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귀측 대표단 단장인 연형묵 정부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총리 연 형 묵 귀하

나는 1990년 11월 21일부터 개최되는 제 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 병 용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임 동 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김 용 환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1990년 11월 20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22) 북한 정무원총리, 제 3 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참가 대표명단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11.20 (화) 10:10 ~ 10:15
- 통화자 : (남) 김 기 응 (북) 김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1월 20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강 영 훈 귀하

나는 제 3 차 북남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에 우리측 대표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의 백남준, 최우진 대표들과 최봉춘 책임연락원이 수원 2명과 함께 나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연 형 목

1990년 11월 20일

(23)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세 3 차 남북고위급회담 체류일정 및 실무대 표접촉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세의 진통문

- 일 시 : 1990.12. 3 (월) 14:03 ~ 14: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십사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2월 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최 봉 춘 귀하

나는 오는 12월 1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 3 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체류일정과 실무대표접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책임연락관접촉을 1990년 12월 5일 (수) 오전 10시 관문점 귀측 지역 『통일각』에서 가 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1990년 12월 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24)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 일 시 : 1990.12. 4 (화) 10:05 ~ 10: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2월 4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귀하

나는 제 3 차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한 제 4 차 실무대표접촉 문제를 비롯하여 제 3 차 북남고위급회담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쌍방 책임연락원 접촉을 위해 오는 12월 5일 (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지역 『통일각』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년 12월 4일

다. 유엔가입문제 관련 남북한 실무대표접촉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유엔가입문제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세
의 전통문

- 일 시 : 1990. 9. 12 (수) 09:38 ~ 09:4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강 덕 순
- 내 용

대한적십가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책임연락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신화통신문
을 보내니 북남고위급회담 남측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12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나는 제 1차 북남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북남고위급회담 대표간담회
대책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실무접촉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3일 (목)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의 「 통일가 」에서 책임연
락원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 책임연락원

최 봉 춘 .

1990년 9월 12일

(2)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9. 12(수) 14:36 ~ 14:43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9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귀하

나는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귀측의 단일의석하의 유엔공동가입 주장
에 대해 설명을 듣기로 한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관련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9월 13일(목) 오전 10시 판문점 귀측지역 「통일각」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년 9월 12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3) 북한 정무원총리, 유엔가입문제 관련 제 1차 남북한 실무대표집중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9. 14 (금) 11:37 ~ 11:4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대표단 우리측 단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북남고위급회담 대표단 귀측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14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강 영 훈 총리 귀하

나는 제 1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데 따라 UN에 하나의 의

석으로 가입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대표 접촉을 9월 18일 (화)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접촉에 우리측에서는 대표 1명과 수원 2명이 나갈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목

1990년 9월 14일

(4)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1차 남북한 실무대표접촉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9. 14 (금) 15:17 ~ 15:2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인 강영훈 국무총리의 요청
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귀측 대표단 단
장인 연형목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9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귀하

귀하의 9월 14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귀측의 단일의석하의 유엔공동가입 주장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우리측 대표 1명과 수행원 2명이 9월 18일(화)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갈 것입니다.

1990년 9월 14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5)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제 3차 남북한 실무대표접촉 관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0. 25(목) 10:11 ~ 10:16
- 통화자 : (남) 김 기 웅 (북) 김 동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현 귀하

나는 북남고위급회담 대표단 북측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0월 25일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원 김 용 환 선생 귀하

나는 유엔대책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쌍방대표 접촉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오는 1990년 10월 27일(토)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쌍방 책임연락원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원 최 봉 춘

1990년 10월 25일

(6)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0. 26 (금) 10:06 ~ 10:13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김 명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0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최 봉 준 귀하

나는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 쌍방 책임연락관 접촉을 갖기 위해 오는
10월 27일(토) 오전 10시 평문점 귀측지역 「봉원각」에 나갈 것임을 알
리는 바입니다.

1990년 10월 26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책임연락관 김 용 환

3 . 남북 당국 ·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가. 남북 당국 · 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제 1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한 정무원총리, 제 1차 대남편지 전달 관련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 9 (화) 15:03 ~ 15:09
- 통화자 : (남) 최 상 철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 원 장 손 성 필

1990년 1월 9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1월 9일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각 정당 대표들의
연합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연합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천명하신 소국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대책을 토의

하고 남조선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재백하였습니다.

나는 연합회의의 위임에 따라 이 편지를 귀족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보내려고 합니다.

나는 이와 관련한 실무절차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오늘 1월 12일 (금)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실무자들의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1990년 1월 9일

(2)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1차 대남관지 접수 관련 선봉문

- 일 시 : 1990. 1. 11(목) 15:05 ~ 15:13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족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귀하

나는 귀하의 1월 9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 같이 쌍방 당국간에는 그동안 판문점을 통해 편지를 주고 받은 것이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좋은 관례는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편지전달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실무 접촉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귀측의 편지를 전달받기 위하여 1990년 1월 13일(토)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 1월 11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3) 북한 정무원총리, 제 1차 대남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1. 12 (금) 16:01 ~ 16:14
- 통화자 : (남) 최 상 철 (북) 김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

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직접사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상 필

1990년 1월 12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상 영 훈 귀하

나는 지난 1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각 정당 대표들의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편지를 귀측의 협상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2명의 연락원을 서울에 파견하겠다는 전화통지문을 귀하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연락원을 서울에 보내어 귀측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구국제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하루빨리 민족분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북과 남사이에 자유로운 내왕과 전면 개방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에 비추어 볼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측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지난날의 관례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성의있는 제의를 거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유감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측이 지금까지의 관례를 구실로 북과 남사이에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을 좁은 판문점 지역에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결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태도로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북남 사이의 자유내왕과 전면 개방문제가 일상에 올라 있을 때에 연락원들이 협상 당사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다면 북과 남사이에 대결상태는 언젠가도 풀리지 못할 것이며 북남관계는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귀측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우리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내왕이요 개방이요 하는 것이 빈말일 뿐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의 연락원들이 서울에 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실정에서 부득이 판문점에서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1월 13일 오전 10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 형 북

1990년 1월 12일

나. 제 1 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1 차 대북서한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1. 30 (화) 15:03 ~ 15:06
- 통화자 : (남) 최 상 철 (북) 강 덕 순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를 귀족 성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2월 1일 (목)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 1월 30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2) 북한 정무원총리, 세 1차 대북서한 접수 관련 전보문

- 일 시 : 1990. 1. 31 (수) 15:03 ~ 15:06
- 통화자 : (남) 최 상 천 (북) 김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위임에 따라 다음의 간화본기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90년 1월 31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의 편지를 넘겨받기 위하여 1990년 2월 1일 10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1990년 1월 31일

다.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제2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한 정무원총리, 제2차 대남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2. 14 (수) 10:20 ~ 10:2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90년 2월 14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2월 15일 (목)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낸 것입니다.

귀측에서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1990년 2월 14일

(2)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2 차 대남편지 접수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2. 15 (목) 10:03 ~ 10:06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신화동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2월 15일

대헌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2월 15일(목)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90년 2월 15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라. 제 2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2차 대북서한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3. 2 (금) 10:11 ~ 10:1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총리 연 영 북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3일 (토)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2) 북한 정부원총리, 제 2 차 대북서한 접수 관련 전동문

- 일 시 : 1990. 3. 2 (금) 15:01 ~ 15:0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강 영 훈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앞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문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3일(토) 오전 10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년 3월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마.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 제3차 대남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한 정무원총리, 제3차 대남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3. 22 (목) 10:00 ~ 10:06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3월 22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대표협회의 위임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 채택한 「남조선의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귀하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23일(금)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1990년 3월 22일

(2)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3 차 대남편지 접수 관련 진통문

- 일 시 : 1990. 3. 23 (금) 10:05 ~ 10:09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천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인 형 목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3월 23일(남)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낸 것입니다.

1990년 3월 2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상 영 훈

바. 제 3 차 대북서한 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3 차 대북서한 전달 추후통보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3. 27(화) 15:02 ~ 15:06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강 종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귀하

나는 귀측의 지난 3월 23일자 편지와 관련하여 우리측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수일내에 귀측에 보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990년 3월 27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2)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 3차 대북서한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4. 4 (수) 15:02 ~ 15:06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4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6일

(금) 오후 2시 2명의 연락관을 관분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 4월 4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3) 북한 정무원총리, 제 3차 대북서한 접수 관련 전통문

- 일시 : 1990. 4. 4 (수) 17:40 ~ 17:44
- 통화자 : (남) 이종렬 (북) 김광철
- 내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
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0년 4월 4일 .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귀하

4월 6일은 민족전통의 명절인 한식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보내는 편지를 접수하기 위해 4월 7일(토) 오전 10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임을 알립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1990년 4월 4일

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소집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한 정무원총리, 대남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7. 21 (토) 10:05 ~ 10:11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들의 위임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는 편지와 함께 남조선의 대통령·민주자유당 총재 노태우,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민주당 이기택 총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3일(월)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1990년 7월 21일

(2)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남편지 접수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7. 23 (월) 10:01 ~ 10:05
- 통화자 : (남) 김 기 응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연 형 북 귀하

나는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기 위하여 7월 23일(월)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1990년 7월 23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3) 북한 정무원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관련 실무집중
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7. 25 (수) 15:32 ~ 15:4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와 「범민속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25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 귀하

나는 7월 23일 귀하에게 「콘크리트장벽」을 해체하고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을 위한 실무접촉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는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남 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협의하면서 귀측이 제기한 「콘크리트장벽」공동조사 문제를 포함하여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폭넓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상회의야말로 북과 남의 각계각층 광범한 인민들의 의사를 훌륭히 반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전민족적 요구에 부합되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위있는 협상마당으로 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협상회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지면 귀측이 제기하는 여러 갈래의 실무접촉들을 구태여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이미 제의한 바 대로 귀측에서 7월 27일의 실무접촉에 4명의 대표를 내보내 줄 것을 희망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1990년 7월 25일

(4) 북한 정무원총리,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관련 실무접촉
호응 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8. 4 (토) 11:40 ~ 12:1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4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귀하의 7월 30일부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귀하는 통지문에서 북남사이의 래왕과 교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귀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와 최고

인민회의 제 9기 제 1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본단의 장
백을 허물고,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 데 대하여 천명하
시면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 5개방침을 제시
하시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상에 하신 김일성 수석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부 성명에서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에 대한 우리측의 원칙적 입장과 함께 오는 8월 15일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을 개방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귀하에게 보낸 7월 21일부 편지에서 「분단장벽해체 북
남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데 대하여 제의하면서 이 문제를 포함하여 북
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
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귀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실무
접촉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제의는 한 반세기 동안이나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래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자유로운 래왕과 상봉의 기
쁨을 가져다 주며 조국통일 위업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됩
니다.

귀측이 진실로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제의를 아무 전제조건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그 무슨 「범무당국자 실무회담」이나 「군사당국자 실무
회담」이나 하는 것들을 내치시켜 우리측이 제의한 7월 27일 실무접촉에
나오지 않았으며 최근에 와서는 남북사이의 전면적인 래왕은 고사하고 국
히 부분적인 래왕조치도 기로막이 나시고 있습니다.

귀족이 민족대교류 제안과 그 후속조치에서 「범민족대회」 제 2차 예비 집회에 참가할 우리측 준비위원회 대표들의 서울방문과 「전민련」대표들의 평양방문을 아무런 조건없이 허락하겠다고 선언하고도, 우리측 대표들의 서울방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섰으며 「전민련」대표들의 평양방문을 부당한 구실을 붙여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입니다.

귀족은 말과 행동이 다른 태도를 귀함으로써 민족대교류라는 것이 순전히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선전광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족이 실지로 북남사이의 자유래왕을 할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민족을 우롱하는 서툰 연극을 그만두어야 하며, 당면하여 「범민족대회」 제 3차 예비집회에 참가하려는 「전민련」대표들의 평양방문을 허락하고 「임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위원장이 제기한 「임수경 학생 위문단」의 남측 지역 방문을 허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 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내용은 북남최고의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쌍방 실무집회에 하루빨리 응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간수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과 각 정당 대표들의 실무집속이 일리면 거기에서 귀족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당국과 각 정당 대표들의 실무집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정하면서 편리한 날짜를 정한 것을 귀족에 입입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무원총리 연행북

1990년 8월 4일

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통일원장관 앞 「콩크리트 장벽」
관련 전통문

- 일시: 1990. 2. 19 (월) 15:06 ~ 15:30
- 통화자: (남) 김광호 (북) 김경일
- 내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2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대한민국 통일원 장관 이홍구 귀하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온겨레와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헤아리시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콩크리트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 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천명하시였습니다.

전체 조선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 인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루빨리 콘크리트 장벽이 제거되고 북남 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 개방이 실현되어 조선반도에서 완화와 화해와 통일의 새국면이 열리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귀족 당국자들은 기회있을때마다 북남 사이에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부순 차단물막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의 격체상태가 해소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온거리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10여년전에 구축된 콘크리트 장벽은 지금 이시각에도 내전과 분열의 상징으로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장벽을 허무는 것이 자유래왕과 전면 개방을 실현하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당국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해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콘크리트 장벽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콘크리트 장벽을 실물로 귀족에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말로써가 아니라 콘크리트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필름과 녹화테이프, 사진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는 2월 22일(목) 오후 3시 관문집에서 귀족에 넘겨주려고 합니다.

둘째로, 콘크리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경우 자유래왕의 당사자로 된 북과 남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각종 인민들이 콘크리트

장벽의 유무를 직접 확인하도록 장관을 조직하자는 것입니다.

당면하여서는 방학기간과 농한기를 이용하여 청년학생들과 농민들로부터 콘크리트 장벽을 먼저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오는 2월 26일(월) 귀측의 대학생들과 농민들을 각각 100명 정도씩 먼저 관문점을 거쳐 우리측에 보내 주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측도 같은 시기에 대학생들과 농민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이 청년학생들과 농민들을 보내주면 우리는 그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고 모든 편의와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 당국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지로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이 없다면 귀측이 우리의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안 병 수

1990년 2월 19일

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통일원장관 앞 남북대화 관련 전
통문

- 일 시 : 1990. 5. 7 (월) 10:05 ~ 11:0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상 호

1990년 5월 7일

대한민국 통일원 장관

홍 성 천 귀하

경애하는 김일성 수석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전면개방을 실현할때 대한 시극적인 통일촉진방안을 천명하신 때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추진시키려는 입원으로부터 정부·정당대표 연합회의와 협의회의 이듬으로 구체적인 제안이 담긴 편지문 세차례나 귀측의 책임적인 인사들에게 보냈으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노력은 귀측 당국의 거부태도로 말미암아 아직 아무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귀측 총리가 보내온 세차례의 회답편지는 우리에게 실망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새로운 평화통일 제안에 대한 귀측 총리의 불성실한 회답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남후의 건전한 대화를 바라는 마음에 시 이 전화통지문을 귀하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선 귀측 총리의 회답편지가 우리의 제안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는데 대하여 지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대표 연합회의」이름으로 된 정중한 제의에 대하여 귀측 총리가 누구의 위임이나 누구와의 합의도 없이 혼자 나서서 편지를 보내온 것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측 「정부·정당대표 연합회의」의 명의로 된 편지들에 대한 회답을 그때마다 수신인도 바로 가리지 못하고 우리측 총리 앞으로 보내온 것은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측의 제안이 처음부터 북남 당국사이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는 것은 귀측도 잘 알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 총리가 거듭 우리측 총리에게 회답편지를 보내 온 것은 우리가 제의한 문제를 단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고의적인 처사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귀측 총리가 보내온 편지들의 내용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측의 편지에 대한 성실한 대답으로 되지 않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대화와 통일문제에 임하는 귀측 당국의 개탄할만한 자세를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엄연한 현실을 왜곡·날조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며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귀측의 표리부동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귀측의 도덕성과 양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콘크리트장벽」을 있지도 않는 것이며 허구적인 것이라고 억지를 쓰는 것이나, 군사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선차방어용 시설물이라고 변명하는 것이나, 더욱이

적반하장격으로 그것을 허무는 것이 자기측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라고까지 역설하는 것은 국정을 맡고 있는 총리로서 무책임하고 상술한 태도이며 민족을 우롱하고 사기의 양심마저 속이는 전면파한 행위입니다.

만일 귀측이 말하든대로 「콘크리트장벽」이 없다면 무엇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응하지 못하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콘크리트장벽」이 실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더욱이 최근 국제조사단에 의하여 「콘크리트장벽」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된 상태에서 소차 장벽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이며 헛된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측은 말로만 래왕과 개방을 환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장벽」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진정한 개방의지, 통일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귀측이 「콘크리트장벽」에 대한 공동조사를 계속 회피하고 분연의 장벽을 허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득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아직도 냉전시대의 대결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귀측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두고 우리는 귀측의 불투명한 통일의지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놓아야 할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70년대에 시작된 틱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오늘날에 와서도 계속 상행하면서 정세를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성숙되어가는 대화를 중단상태에 몰아 넣는 것도 불사하며 땅굴사건이라는 상투적인 조작극까지 꾸며내어 남북대결을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는 귀측의 반대화·반통일 가세는 그 무엇으로서도

합리화 할 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옹당한 규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지향적인 애국적 제의에 전쟁연습으로 대답해 나르고, 「콘크리트장벽」을 제기하자는데 대해서는 명굴사건과 같은 모략극으로 도전해 나서는 귀족의 태도는 상식 밖의 저열한 행위로 밖에 달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태가 이와같이 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의 도덕적 기준에서 민족의 장래운명을 서로 논의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할 우리들로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세째로, 북남회담에 대한 귀족의 독선적인 태도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며 통일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국사이의 대화에 옹당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결코 집권자들 사이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민족적인 문제이며 이 문제의 성과적인 해결을 위하여서는 당국과 각당·각파·각계각층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들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귀족이 협상회의 방식을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그것은 다만 통일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통일논의를 독점하려는 독선적 사고방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측은 정치협상회의 테두리 안에서 쌍방 최고위급의 상봉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귀족이 정치협상회의와 정상회담을 대치시키면서 어느 회

답은 할 수 있고, 어느 회답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협상회의 뿐 아니라 정상회담 자체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귀측이 주장하는 기존대화의 재개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귀측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기존대화를 재개하여도 그것이 또 거래에게 실망을 주는 것으로 된다면 대화의 재개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귀측이 진심으로 대화와 통일문제에 옳은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상 안 병 수

1990년 5월 7일

4. 민족대교류 및 범민족대회

가. 7.20 「민족대교류 선언」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민국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실현절차협의 관련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7. 20 (금) 11:01 ~ 11:21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귀하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1990년 7월 20일, 해방 45주년을 맞는 올해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특별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오는 8월 13일부터 닷새동

안 판문점을 통보로 열어놓고 북한 동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여 그들이 원하는 남쪽의 어느 지역도 자유로이 방문하고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만날 수 있게하는 동시에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간중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제한없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우리가 남쪽을 찾아오는 북한 동포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것처럼 북쪽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올 광복절의 민족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쌍방은 추석, 설날, 한식 등 민족명절을 전후로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온거래가 언제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방과 교류·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남북간에도 자유왕래의 길이 트이기를 고대하고 있는 온거래의 간절한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절과 대결로 점철되어온 남북관계를 화해와 교류·협력구조로 바꾸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귀측의 최고당국자도 지난 1월 1일 남북한 사회의 완전개방과 자유왕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측이 선포한 「민족대교류」에 대해서 귀측이 아무런 조건없이 기꺼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8월 15일을 전후한 「민족대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30일(월)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당국간의 실무접촉을 가실 것을 제의합니다.

쌍방의 실무대표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90년 7월 20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2) 대한민국 국무총리, 남북 군사·법무 당국자 실무접촉 제의 전통문

- 일시 : 1990. 7.24 (화) 10:04 ~ 10:32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김동해
-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귀하

나는 지난 7월 20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귀하에게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를 협의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간에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접촉을 오는 7월 30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같은날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을 통해 「관크리트장벽」철거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8.15 범민족대회」개최 등을 남북왕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그동안 남북간에는 쌍방 당국의 신변안전보장하에 대표, 수행원, 기자 등 회담대표단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오고 갔으며 지난 1985년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한류를 상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귀측이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들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주장하고 있는 전제조건들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대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온겨레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귀측이 제기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남북 쌍방 당국의 해당기관 대표들이 만나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7월 23일 오전 9시 3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을 오는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각각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귀측은 7월 23일 오후 우리측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 제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국·정당 실무접촉을 위한 대표들을 판문점에 내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개방문제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쌍방 당국간에 위

의·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귀측이 당국·정당수뇌급 협상 회의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왕래와 개방분제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에서는 귀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장벽」공동조사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의 대전차장애물과 땅굴에 대한 공동조사문제를 협의 하며, 공동조사를 위해 귀측은 우리측 지역 어느 곳이든지 와서 조사하고 또한 우리는 귀측지역을 자유로이 조사활동 할 수 있도록 상호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각기 3명의 군사요원이 참가하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에서는 남북법무당국자회담의 준비절차문제를 협의하며, 남북법무당국자회담이 열리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및 구속자 문제와 귀측의 안전관계 형사법과 사상범문제 등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은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각기 3명의 법무실무자가 참가하며,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중 귀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의 이러한 접촉 제의들이 우리 정부가 범민족대회 개최에 대한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함께 민족대교류 실현과 관련하여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조치로서 귀측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같은 접촉들은 8월 15일을 전후한 민족대교류의 절차협의를 위한 쌍방당국자 실무접촉과 함께 남북교류와 통일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신지에서 나는 귀측이 7월 27일 남북 군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법무접촉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7월 30일의 민족대교류 실현절차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0년 7월 24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3) 대한민국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협의관련 당국간 실무접촉 호응 재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7.26 (목) 14:33 ~ 14:4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강 삼 종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신화통신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귀하

나는 지난 7월 20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민족대교류 실현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당국간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7월 30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개방문제는 귀측이 주장하는 당국·정당 협상회의가 아니라 당연히 그 책임과 권능을 가진 쌍방 당국간에 협의·해결해야 하며, 이같은 우리측 입장은 이미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난 7월 24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귀측이 남북왕래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비록 부당한 것이기는 하나 상호주의에 따라 이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을 7월 27일 각각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귀측이 동의한다면 언제라도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을 열어 쌍방의 대전차장애물과 땅굴에 대한 공동조사 문제와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문제를 논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는 귀측이 제기한 자유왕래의 전제조건들을 남북간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당국·정당 협상회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측의 정당한 제의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귀측이 민족대교류 제의에 호응함으로써 우리측이 제의한 7월 30일의 민족대교류 실현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당국간 실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90년 7월 26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4) 대한민국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실현설차 협의관련 실무접촉 호응
재촉구 전통문

- 일시 : 1990. 7.30 (월) 15:07 ~ 15:35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정영수
-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상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복 귀하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올해 8.15 광복절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명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냉전체제의 대결을 종식하고 새로운 화해의 질서를 이루는 큰 변혁속에서 남북이 화해와 민족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총정에서 비롯된 조치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는 지난 7월 20일 「민족대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월 30일 판문점에서 쌍방 당국간의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귀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나는 지난 7월 24일에도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법무당국자 실무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전화통지문을 귀하에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25일과 26일에도 각각 귀하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재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지금까지도 이같은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아무런 성의있는 대답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동포들간의 왕래와 교류는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고 서로간에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없이 「민족대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귀측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획기적인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러저러한 전제조건을 내거는가 하면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에서 자유왕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그러한 태도가 부당한 것이기는 하나 「민족대교류」의 실

현을 바라는 온겨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귀족이 제기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선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45년간 지속되어온 분단과 대결의 상황속에서 온겨레가 겪어온 고통과 불행을 생각할 때 「민족대교류」는 이제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남북 쌍방당국은 그 첫조치로 광복 45주년을 기해 남북한 동포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온겨레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나는 귀족이 「민족대교류」의 실현을 위한 절차문제 협의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민족대교류」가 시작될 8월 13일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적 촉박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그 6일전까지는 최소한의 조치와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8월 7일까지 귀족의 성의 있는 대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민족대교류」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추석·설날·한식 등 민족명절을 전후로 교류를 정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동포가 언제라도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년 7월 30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 영 훈

(5) 북측,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위원장 명의 대남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8. 1 (수) 16:00 ~ 16:05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위원회 여연구 위원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2일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내니 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1일

(6) 우리측,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위원장 명의 대남편지 접수 거부 전통문

- 일 시 : 1990. 8. 2 (목) 10:02 ~ 10:0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편지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우리측 정부의 입장에 따라 귀측이 8월 2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우리측에 전달하겠다는 편지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년 8월 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7) 북한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위원장, 방북 귀속사 위문단
과건통보 전통문

(90.8.6 방송공개)

대 한 민 국

대통령 노 태 우 귀하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는 임수경 학생이 판문점을 거쳐 돌아간지 1년이 되는 8.15에 즈음하여 장수여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를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기로 하고 지난 2일 그와 관련한 편지를 귀하에게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 실무자들은 우리의 편지를 귀하에게 전달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득이 편지를 방송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는 온겨레가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 화해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때에 편지조차 받아가지 않는 무례한 일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수경 학생을 위문하려는 것은 인도주의적 신념으로나 우리민족

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보나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임수경 학생은 전대협 의 공식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하여 공화국 북반부
각계각층 인민들과 세계각국 인민들로부터 민족의 장한 딸, 통일의 꽃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대학생의 몸으로 평양 체류기간 통일위업에 크게 기여하고 돌아간 임
수경 학생에 대해 우리인민들은 진심으로 찬양해 마지않는 동시에 그의 신
상을 우려하여 지난 1년 동안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습니
다.

특히 최근 옥중에서 심한 근육통과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임수경 학생
이 서울구치소로부터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되어 더 큰 정신 육체적 고통
을 겪고 있는 현실은 우리인민들과 청년학생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있
으며 위문단을 보내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7.20 특별발표에서 8.13~8.17 까지 남조선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며, 이 기간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수 있게 하겠다고 한 조
건에서 우리의 임수경 위문단 파견 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간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귀당국이 우리 위문단 파견제의를 더 이상 가로막지 않으
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8월 14 일 우리 위문단이 예정대로 남측지역을 방
문하기 위하여 오전 9시 판문점에 나갈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 여 연 구

1990년 8월 6일

(8) 북한 정무원총리, 구속자 위문단 신변안정보상 요청 전화문

- 일 시 : 1990. 8. 7 (화) 16:05 ~ 16:23
- 통화자 : (남) 김 광 호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7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임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 위원장은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인민들의 간절한 의사를 반영하여 조국통일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 옥중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임수경 학생과 문기현 신부, 문익환 목사를 오는 8.15를 계기로 위문할 데 대한 재의를 담은 편지와 전화통지문을 귀측에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임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 위원장의 이 거남되는 재의가 순수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요구로부터 출발한 것이므로 귀측이 이에 상의있게 대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더욱이 7월 20일 「특별발표」와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8.15를 전후한 5일동안 남조선만이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조선의 어느지역이나 방문하여 아무나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귀측 당국으로서는 위문단의 서울방문 제의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우리의 편지와 전화통지문을 받는 것조차 거부한데 대하여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귀 당국이 제기한 「민족대교류」와 「자유왕래」가 진실이라면 이제라도 임수경 위문단의 남측지역 방문을 보장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우리측 임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는 이미 오는 14일 기자단을 포함한 위문단을 판문점을 통해 남측지역에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귀 당국은 「민족대교류」기간 남조선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변안전과 편의보장 무사귀환을 보장하겠다고 공인한 바 있는 조건에서 그대로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임수경 석방투쟁조선위원회 위문단 일행의 남측지역 체류기간 그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보장에 대하여 아무 조건없이 담보하리라고 믿으면서 공식절차대로 우리측 위문단 일행에 대한 신변안전 담보조치를 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묵

1990년 8월 7일

(9) 대한민국 국무총리, 민족대교류 기간중 남북 신청자 명단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8. 8 (수) 10:02 ~ 10:33
- 통화자 : (남) 김 기 용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사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영 북 귀하

우리가 「민족대교류」를 제의한 것은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의 동포들이 분단 45년만에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고통안의 고통과 불행을 나누어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데 감뜻이 있습니다.

「민족대교류」를 통해 남북 동포들간에 상호신뢰와 이해가 증진되고 민족적 유대가 이어진다면 7천만 온거레의 소망인 평화와 평화통일은 한층 앞당겨질 것입니다.

나는 귀측도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제의해 놓고 있는 만큼 「민족대교류」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절차분세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동포들간의 자유왕래는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으며 이제는 쌍방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측은 8월 4일자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족대교류」기간중 귀측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8월 4일부터 8일까지 방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는 접수되는 방북 신청자들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8월 9일 오후 3시와 8월 10일 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각각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우리측 연락관 2명을 내 보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측 인원들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는 것과 함께 귀측도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희망하는 귀측 인원들의 명단을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민족대교류」기간중에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귀측 인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편의제공과 무사귀환 및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귀측도 귀측지역을 방문하는 우리측 인원들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귀하의 8월 7일자 전화통지문에서 「민족대교류」기간중인 8월 14일에 귀측의 인원을 우리측 지역에 보내겠다고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민족대교류」기간이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므로 귀측 인원의 방문기간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3박 4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족대교류」가 민족의 화해와 통합의 복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왕래하는 모든 인원들은 최소한 상대방의 안내와 실서를 존중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귀측 인원들이 우리측 지역에 와서 신정법을 위반한 재소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은 「민족대교류」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같은 주장은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그들이 재소자들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남북 쌍방간의 편지나 전화통지문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관행에 따라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과 격에 맞게 오고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90년 8월 8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10) 북한 정무원총리, 방북 신청자 명단 접수 거부 전통문

- 일 시 : 1990. 8. 9 (목) 11:32 ~ 11:52
- 통화자 : (남) 유종렬 (북) 정영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9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귀하가 8월 8일부 전화통지문에서 이른바 「방문자명단 교환」이라는 것을 제의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귀측은 나라가 분열되어 45년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북과 남·재미동포 대표들의 범민족대회를 각방으로 방해하면서 우리측 준비위원회 대표들이 서울 예비접촉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전민련 대표들이 평양 예비접촉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총칼로 가로막는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귀하는 우리의 임수경 위문단을 받아들일 것처럼 하면서도 「재소자」와는 면회할 수 없고 그의 가족과 변호인들이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임수경 위문단을 파견할 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임수경 위문단 파견제 의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보나 통일의 사절들을 위로하려는 동포애의 견지에서 보나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민족적 염원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도 응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귀측 당국사의 7월 20일 「특별발표」와 그 「후속조치」

에서 원하는 사람은 남조선의 어디에도 방문할 수 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한데 비추어 보아도 결코 귀측의 「실서」와 「체제」에 저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누구는 만날 수 없고 누구는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8.15에 즈음한 5일동안의 「민족대교류」요, 「자유래왕」이요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며,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래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한 것으로 됩니다.

귀측이 그 무슨 「명단교환」에 대해 세의한 것은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북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자기의 신변모를 가리우고 여론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범민족대회를 받기한 전민련 대표들이 평양에 들어오는 것도 가로막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 15명의 방북신청도 거부하며 우리의 임수경 위문단 파견제의마저 반대해 나선 귀측이 이른바 「방북신청」같은 것이나 돌리고 「방문자 명단 교환」이나 제의한다고 하여 그것을 순수하고 진실한 것으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귀측이 이제라도 진실로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하려는 입장에서 우리측 임수경 위문단이 남조선에 나가 임수경 학생과 문익환목사, 문규현신부를 직접 면회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민련, 전대협 대표들이 범민족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며 북남사이의 래왕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면 귀하의 「방문자명단 교환」제의를 즉시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원총리 연 형 북

1990년 8월 9일

(11) 대한민국 국무총리, 방북 신청자 명단 전달 관련 연락관 파견 재통
보 전통문

- 일 시 : 1990. 8. 9 (목) 16:55 ~ 17:35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귀하

나는 8월 8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귀측이 민족대교류 실
현절차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의 화해와 민족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쌍방 당국이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는 민족대교류 기간중 남북지역을 방문하는 인원들의 명단을 8월 9일과 8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교환할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 기간중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귀주 인원들에 대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신변안전보장과 부상회환을 약속하였으며, 귀주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오늘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무당권 선제소급을 앞세워 방문신청자 명단 교환자체마저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귀측의 자유왕래와 개방주장의 진심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측은 우리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위문하겠다는 귀주의 이른바 「위문단」에 대해서 까지도 민족대교류의 정신에 기초하여 이를 과감히 수용하였으며 이들이 재소자들의 가족이나 변호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재소자를 직접 면회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그것이 7.20 특별발표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민족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측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미 밝힌 바와같이 동 대회는 그 명칭과 성격에 맞는 행사가 되어야 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순수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범민족대회」가 민족적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한 이의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

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문제와 귀측의 안전관계 형사법 문제를 함께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법무당국자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음을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4천만 우리 국민은 민족대교류가 실현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신청기간에 귀측지역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한 인원은 6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70%의 인원이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산가족들입니다.

분단 45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명분과 구실로도 더이상 이들의 재회와 남북왕래를 가로막을 수 없으며 이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남북 쌍방 당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민족대교류 기간중 귀측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전체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8월 10일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연락관 2명을 내 보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측도 우리측 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귀측 인원들의 명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990년 8월 9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12)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방북 신청자 명단 접수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8.10 (금) 11:15 ~ 11:29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철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병수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신화
통지문을 귀측 통일원 장관에게 보내니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10일

대 한 민 국

통일원장관 홍 성 칠 귀하

나는 위임에 의하여 8월 9일부 우리측 안영복 총리의 신화통지문에서
지적된 몇가지 원칙적 요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자 합
니다.

북과 남사이에 분단의 상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것
은 통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도 이제는 민족을 우롱하거나 여론을 기

만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류와 래왕문제를 가지고 귀 당국이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행동이 다르며 귀측 고위당국자가 하는 말과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로 다른 자가당착의 모순점에 깊은 의혹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귀측 국무총리에게 보낸 우리 정무원총리의 9일부 전화통지문에서 몇가지 중요한 원칙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귀측이 최소한 이 요구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귀측이 진실로 래왕을 바라고 통일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측 「위문단」이 예정대로 남측지역을 방문하고 임수경학생과 문익환목사, 문규현신부를 면회할 수 있게 하고 「전민련」, 「전대협」대표들이 「8.15 범민족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며, 귀측 자체도 인정하고 있는 북남래왕과 교류의 차단물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으로써 진짜 래왕과 교류를 하려는 진실성을 표시한다면 귀측의 제의를 즉시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 안 병 수

1990년 8월 10일

(13) 대한민국 국무총리, 특정단체 소속 방북자 명단 전달 및 신변안전 보장각서 접수 관련 당국간 연락관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8.13 (월) 09:20 ~ 09:32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십사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상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귀하

우리 정부는 8월 12일 오후 3시 국토통일원 장관의 대북성명을 통해 특정단체 소속 인원들의 방북을 위한 방송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그간 귀측이 선별적으로 초청의사를 밝혀놓고 있는 천주교성의 구현사제단과 전민련 등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 중 8월 13일부터 17일 사이의 민족대 교류기간에 귀측 지역 방문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북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이들의 명단과 방북신청을 한 취재기사 선원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고 귀측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상각서를 접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에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동 연락관접촉을 8월 13일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기를 희망하며,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우리측 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귀측 인원들의 명단을 함께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13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나. 「범민족대회」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명의 「전민련」앞 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3.28 (수) 10:02 ~ 10:07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남조선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3월 29일 (목)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파견하니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2) 우리측,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명의 편지 접수 거부 전통문

- 일 시 : 1990. 3.29 (목) 10:01 ~ 10:07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하의 3월 28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1989년 4월 24일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직통전화
화가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
지가 있는 편지나 전화통지문의 전달에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
을 명백히 밝힌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측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나는 귀측이 3월 29일에
보내겠다고 한 편지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년 3월 2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3)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전민련」앞 편지전달 관련 「전민
련」인원 파견 요청 전통문

- 일 시 : 1990. 7.23 (월) 16:00 ~ 16:08
- 통화자 : (남) 김 광 호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
지문을 보내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23일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앞

나는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제 2차 예비회의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편지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4일 (화) 오후 3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상원 2명을 내보낼 것입니다.

나는 귀단체에서 우리의 편지를 받아가기 위하여 신입장을 지참한 2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년 7월 23일

(4) 우리측, 「전민련」앞 편지 접수관련 적십자 연락관 과신통보 신통분

- 일 시 : 1990. 7.24 (화) 10:32 ~ 10:3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동 해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하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동안 남북간의 모든 연락업무는 쌍방 적십자사가 담당·수행해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나는 귀측의 「범민족대회」준비위원회가 우리측 「전민련」앞으로

보내오는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2명의 적십자 연락관을 7월 24일 (화)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보낼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귀측 「범민족대회」준비위원회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5)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위원장, 국무총리 앞 편지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7.24 (화) 10:36 ~ 10:42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동 해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무총리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24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오는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준비를 위한 제

2차 예비회의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편지를 귀하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5일(수)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2명의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년 7월 24일

(6) 북측, 「전민련」앞 편지전달 관련 「전민련」인원파견 재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7.24 (화) 14:13 ~ 14:20
- 통화자 : (남) 유 종 렬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귀하의 7월 24일부 전화통지문을 받고 실망을 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8.15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에서 귀측의 「전민련」에 편지를 보내려 한 것은 이 대회를 직접 발기하고 추진시키고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으로 보나 대회날짜가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제3자가 개입할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에는 「전민련」을 비롯한 귀측 단체들에 보내는 우리의 편지를 받아 전달하는 것조차 거부해 오던 귀 적십자사가 오늘에 와서는 「전민련」을 대신하여 판문점에 나와 편지를 받겠다고 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해내외 동포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범민족대회」를 훼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미 우리가 통지한 대로 오늘 오후 3시 「전민련」대표가 판문점에서 우리의 편지를 접수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24일

(7) 우리측,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명의 국무총리 앞 편지접수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7.24 (화) 15:22 ~ 15:2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동 해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정부당국의 요청에 따라 귀측 「범민족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25일(수)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입니다.

접수한 편지는 정부당국에 전달할 것입니다.

1990년 7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8)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선민련」앞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명단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7.25 (수) 11:00 ~ 11:2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화통지문을 보내니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앞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24일 우리는 「전민련」이 추진하고 있는 「범민족대회」 제 2차 예비회의에 우리 대표단의 참가문제와 관련한 편지를 귀단체에 전달하기 위하여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남조선 당국이 이에 간섭함으로써 귀단체의 연락원은 나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부득불 귀단체에 보내는 편지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범민족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제 2차 예비회의의 첫걸음부터 남조선 당국의 방해에 부닥치고 있으나, 귀단체와 힘을 합쳐 어떻게 하나

민족의 대통일축제로 될 「범민족대회」를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조금도 굽힐 수 없으며,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분열주의 세력의 거듭되는 도전과 훼방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만남을 만들어 내고 내일의 「범민족대회」소집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범민족대회」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온 북측 준비위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회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제 2차 예비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대표단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제 2차 예비회의에 참가할 「범민족대회」북측준비위원회 대표단을 5명으로 구성하고 이에 취재기자를 10명 동행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측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금 철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
2. 손 종 철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3. 조 상 호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4. 김 동 국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5. 강 지 영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

우리측 대표단은 제 2차 예비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7월 26일 오전 9시에 판문점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단이 서울에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귀단체 대표들이 판문점에 나와 마중하여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와 「전민련」의 첫만남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그 무엇으로서도 꺾을 수 없으며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대행진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범민족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년 7월 25일

(9) 대한민국 국무총리,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참가 북측대표 신변안전 보장 및 판문점통과 관련 연락관 섭촉제의 선통분

- 일 시 : 1990. 7.25 (수) 15:03 ~ 15:2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정무원총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7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귀하

나는 오늘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보내온 7월 24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7월 26일 서울에서 있을 예정인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제2차 예비회의에 파견하는 5명의 실무대표들이 임무수행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귀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0일의 민족대교류 제의의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귀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제기한 자유왕래의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쌍방의 해당당국간에 협의·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8.15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귀측 실무대표들이 예비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우리 정부당국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귀측 실무대표들이 임무수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거듭 약속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누누히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이에 따른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실현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에 이러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않은 상황에서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측 당국을 통해 상대측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 이것은 그동안 남북간의 관행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는 귀측 인원 15명이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 오는데 따른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7월 26일 오전 7시 30분 판문점 중

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우리측 연락관 2명을 내 보낼 것입니다.

쌍방 연락관 접촉에서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귀측 인원의 사진이 첨부된 명단을 우리측에 넘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범민족대회에는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남북상호간 비방하거나 자각하지 말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나는 귀하가 이같은 우리측의 입장과 방침을 귀측 해당준비위원회에 정확히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 8.15 범민족대회 」의 원만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귀측이 7월 30일의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0년 7월 25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10)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참가 수행기자

신변안전보장 요청 전통문

- 일 시 : 1990. 7.25 (수) 15:45 ~ 15:50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이명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상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와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25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제 2차 예비접촉에 참가하기 위해 남조선에 나가는 우리측 대표단의 신변안전 담보를 비롯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귀하에게 이미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우리와 「전민련」, 해외측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범민족대회」의 성공적 개최문제를 협의하게 될 역사적인 회합에 우리측 대표들이 참가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귀측에서 이미 이 회의참가를 위해 서울에 가는 우리측 대표 5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조건에서 대표단과 동행할 기자 10명에 대해서도 신변안전을 담보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바 입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년 7월 25일

(11) 북한 정무원총리,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관련 쌍방 연락관 접촉 수
락 전통문

- 일 시 : 1990. 7.25 (수) 18:00 ~ 18:0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명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
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7월 25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나는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접촉에 참
가하기 위하여 우리측 대표단이 서울에 가는 것과 관련한 실무절차를 토
의하기 위하여 7월 26일 오전 7시 30분에 2명의 연락원을 관문집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북

1990년 7월 25일

(12)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범민족대회 예비회담(평양) 참가 「전민련」대표 신변안전 보장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8. 1 (수) 15:00 ~ 15:12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국무총리에게 이를 정확히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8월 1일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강 영 훈 귀하

은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서 「범민족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족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통일운동 역사에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범민족대회」를 성공시키는 것과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귀 당국의 계속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범민족대회」와 그에 앞서 진

행되는 제 3차 예비접촉에 참가할 의지를 굳히고 있는 「전민련」대표들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데는 사실상 아무런 장애도 없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것*도 없습니다.

「전민련」대표들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면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가 주인이 되어 그들을 따듯이 맞이하고 안내할 것이며, 우리 당국은 그들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할 것입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평양에서 열리는 제 3차 예비접촉에 참가하는 「전민련」대표들을 위하여 8월 6일 아침 8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우리측 당국의 신변안전담보각서를 귀측에 넘겨주게 될 것임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복

1990년 8월 1일

(13) 대한민국 국무총리, 범민족대회 예비회담(평양)관련 각계각층 대표
신변안전보장 요청 전통문

- 일 시 : 1990. 8. 4 (토) 11:05 ~ 11:3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화통지문을 보내니 이

를 귀측 정무원 총리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8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귀하

귀하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7.20 특별발표는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오는 8월 13일부터 닷새동안 남북간에 민족대교류를 실시하고 이 바탕위에서 남북의 동포가 자유왕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자는 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간의 왕래와 교류가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를 다시 잇는 유일한 수단이며 통일을 위해 거처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7.20 특별발표의 정신을 살려 이를 성사시키려는 일념에서, 귀측이 자유왕래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전제조건들에 대해서까지 상호주의 원칙에서 협의·해결해 나가며, 아울러 비록 「범민족대회」가 민족대교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지난 7월 26일 서울 예비회의에 참가하려는 귀측 대표들의 서울방문을 허용하였고 그들의 체류기간중 신변안전 보장과 편의제공 요청을 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 대표단이 불

참채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끝내 되돌아간 데 대하여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민족대회」가 그 이름에 걸맞게 특정단체와 개인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대회로 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을 비방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상호이해를 증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8.15 「범민족대회」가 명실공히 민족화합 차원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참가를 희망하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귀측이 8.6 평양 예비회의 참가문제와 관련하여 특정단체 대표들에 대해서만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이 「범민족대회」의 성사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동 예비회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측 모든 단체의 인사들과 취재기자에 대해서도 마땅히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백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족대교류 기간중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우리측 인원들에 대한 신청을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키로 하였음을 귀측에 알리면서, 귀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에 귀측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나는 7월 25일자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관계의 현실과 관행으로 보아 서신을 주고 받는 상대와 명의는 상

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내용과 격에 맞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
고자 합니다.

1990년 8월 4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5. 남북체육회담

가. 제 11 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구성·참가 관련 쌍방 전통문

(1) 남북체육회담 북측 대표단장, 9 차회담시 기재기 [3 개] 전제조건
수락 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2. 12 (월) 16 : 01 ~ 16 : 14
- 통화자 : (남) 최 상 철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90 년 2 월 12 일

북남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 제 9 차 회담에서 우리측은 제 11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유일팀으로 출전하는데서 나서는 3 가지 원칙적 문제들을 귀측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한 3가지 원칙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하나 온 겨레와 체육인들이 바라는 유일팀을 성사시키기 위한 숭고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극히 초보적이고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귀측이 진실로 유일팀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측이 제기한 3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그 어떤 이유와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말로만 유일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측이 제기한 원칙적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유일팀 구성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제9차 회담이 끝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의 결렬을 서둘러 선포하였을 뿐 아니라 귀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그 다음 날에 발표한 성명에서 회담결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일팀을 바라는 온 겨레와 체육인들의 기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유일팀 구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은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반드시 유일팀으로 출전하여야 합니다.

이제 북과 남사이에 유일팀이 성사되는가 성사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측의 태도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측이 제9차 회담에서 제기한 3가지 원칙적 요구에 대한 태도는 유일팀 구성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귀측이 유일팀 구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개별팀으로서의 출전을 추구하는 부당한 입장을 버리고 하루빨리 유일팀으로 출전하려는 입장으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어떤 형태로든 하루빨리 우리측이 제기한 3가지 원칙적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제10차 회담에 나오기를 촉구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입니다.

1990년 2월 12일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김 형 진

(2) 남북체육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전제조건」 철회 및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 수락 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2.14 (수) 10:05 ~ 10:17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남북체육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체육회담 귀측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2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김 형 진 귀하

나는 지난 제 9차 회담에서 쌍방간에 단일팀 공동추진기구를 발족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본 2월 15일 이전에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해 줄 것을 귀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귀측이 제 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실천의지가 있다면 합의사항 이행보장에 호응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보다는 2월 12일부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 대표단과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그간의 회담 진행결과와 관련하여 우리측 입장을 내외에 밝힌 사실까지 부당하게 시비하였습니다.

귀측이 내세운 이른바 3개 요구조건에 대해서 말한다면 귀측은 제 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 선수단의 동 대회참가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담을 이용해 왔으며, 그같은 기도의 실현이 어렵게 되자 회담을 파탄시키고 그 책임을 상대방측에 전가하려하고 있음이 이미 세상에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측에게 부당한 요구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체육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온 전철을 되풀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귀측이 부당한 요구조건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에 동의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단일팀 추진일정에 사실상 여유가 없으므로 늦어도 오는 2월 20일 까

지는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에 대하여 귀측의 긍정적인 태도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90년 2월 14일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3) 남북체육회담 북측 대표단장, 「 3개 전제조건 」수락 재촉구 전통문

- 일 시: 1990.2.19 (월) 10:05 ~ 10:25
- 통화자: (남) 유 종 렬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 유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2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북남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난 9차 본회담에서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절대로 별개의 팀으로 가지 않고 유일팀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쌍방이 확인하고 내외에 선포할데 대한 문제,

귀측이 회담 외적문제이거나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유일팀 구성을 지연시킨 사실을 시인하고 부칙을 완전히 철회할데 대한 문제,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별개의 팀으로 가겠다고 한 귀측의 책임적인 체육관계자들의 발언을 취소할데 대한 문제 등 3가지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측은 또한 지난 2월 12일부 전화통지문에서 귀측이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제 10 차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교착상태에 빠진 회담을 구원하며 온겨레가 바라고 모든 체육인들이 원하는 유일팀을 성공시켜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별개 팀으로가 아니라 유일팀으로 출전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매우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2월 14일부 회담 전화통지문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성근하게 받아들일 대신 오히려 회담을 결렬시킨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행동이야 말로 유일팀의 탄생을 고대하고 있는 온겨레와 모든 체육인들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우롱이며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측이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를 범죄적인 두개조선 목적에 이용하려는 데로 부터 회담에 나와서 일관하게 문제토의에 성실성을 보이지 않고 지연전술에 매어 달렸으며 기본문제 토의가 끝난 회담 막바지에 와서는 당치도 않은 부칙이라는 것까지 들고나와 회담을 고의적으로 결렬 위기에 몰

아 넣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회담 전과정에서 취한 귀측의 그릇된 입장과 태도가 이미 녹화와 녹음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조건에서 귀측은 어떤 구실과 변명으로서도 민족 앞에서 유일팀 구성을 파탄지경에 밀어 넣은 책임을 절대로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귀측으로서의 할일이 있다면 다만 당국의 두개 조선 조작 책동에 가담하여 체육회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유일팀의 전도를 암담하게 만든 책임과 죄과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온겨레 앞에 사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제는 궁색하게 안중에도 없는 유일팀에 대해 말재수를 부리기보다 차라리 별개팀으로 가려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아울러 귀측의 분열주의적 입장으로 말미암아 제 11 차 아세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유일팀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팀으로 참가하게 될때 그로부터 발생할 후과에 대해서도 귀측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귀측이 기레의 염원을 저버리고 별개의 팀으로 가서 메달 몇개를 딴다고 하여도 그것이 민족사에 오점을 남기는 수지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 기회에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제라도 심사숙고하고 우리의 원직적 요구에 응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귀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입니다.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김 형 진

1990년 2월 19일

(4)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북경아시아경기대회 공동응원단 구성
관련 실무접촉 제의 편지전달 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9.11 (화) 16:10 ~ 16:1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강 덕 순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대회」북측준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에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11일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 앞

나는 귀 추진본부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2일(수)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파견할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범민족대회」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 기 북

1990년 9월 11일

(5) 우리측,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명의 남측추진본부 앞 편지접수 서
부 전통문

- 일 시 : 1990.9.12 (수) 11:05 ~ 11:16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명 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측의 9월 11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당국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귀측이 요청하고 있는 편지전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불필요한 부작용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남북간에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전화통지문이나 서신전달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본인의 지난해 4월 24일자 전화통지문을 상기시키면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문제 이외의 서신은 책임있는 당국간에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상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9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나. 남북통일축구대회 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민국 체육부장관, 남북통일축구 평양대회 참가관련 쌍방 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10.5 (금) 16:53 ~ 16:58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전 응 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민국 체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0월 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귀하

나는 1990년 10월 11일 (목)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체류일정을 포함한 제반 실무문제 등을 협의하

기 위하여 오는 10월 8일(월)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1990년 10월 5일

대한민국

체육부장관 정동성

(2)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쌍방 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일시 : 1990.10.6 (토) 10:08 ~ 10:12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정영수
- 내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감상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체육부장관에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성호

1990년 10월 6일

대한민국

체육부장관 정동성 귀하

나는 오는 10월 8일(월) 오전 10시 「북남통일 축구경기」와 관련한 신

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리측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1990년 10월 6일

다. 남북체육교류 및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쌍방 전통문

(1)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 1차 남북체육회담 참가 우리측 대표단 명단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11. 27 (화) 10:05 ~ 10:13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위원장 김 유 순 귀하

나는 11월 29일부터 개최되는 남북체육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수석대표 : 장 충 식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대 표 : 이 학 래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 대 표 : 임 태 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대 표 : 김 사 홍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 대 표 : 박 수 창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

귀측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27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열

(2)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제 1차 남북체육회담 참가 북측대표단 명단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11.27 (화) 11:03 ~ 11:10
- 통화자 : (남) 이명수 (북) 이광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1월 27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종 열 귀하

나는 북남체육회담에 참가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단 장 : 김 형 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부단장 : 장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서기장)
- 대 표 : 김 정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
- 대 표 : 김 상 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
- 대 표 : 김 영 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 유 순

1990년 11월 27일

(3) 남북체육회담 북측 대표단장, 제 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일자 제의 전
통문

- 일 시 : 1990. 12. 10 (월) 15:04 ~ 15:15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이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북남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2월 10일

북남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귀하

북남체육회담 관계자들의 평양·서울 공동합의문에 따라 지난 11월 29일에 열렸던 제 1차 북남체육회담에서는 귀측이 제 2차 회담날짜를 12월 안으로 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대하여 돌아가서 협의하여 통지하겠다고 함으로써 다음번 회담날짜 마저 확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우리의 회담을 지기 보고있는 내외인민들의 요구와 우리앞에 부과될 임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하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 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주요 국제경기대회들에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 출전하는 문제는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의 우리 체육인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시간을 다투는 긴급하고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제 41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이제 4달 앞으로 박두해 오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 쌍방은 회담시일을 늦잡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 상정된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빨리 신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2차 남북체육회담의 개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인정하면서 다음 회담날짜를 오는 12월 20일로 정할 것을 귀측에 다시금 제의합니다.

나는 귀하의 긍정적인 대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남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김 형 진

1990년 12월 10일

(4) 남북체육회담 우리측 수석대표, 제 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일자 수정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12.18 (화) 15:04 ~ 15:20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이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체육회담 우리측 대표단 수석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 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남북체육회담 귀측 대표단 단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2월 18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김형진 귀하

귀하의 12월 10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나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내외의 관심속에서 열렸던 제 1차 남북체육회담에서 쌍방간에 아무런 의견집단을 보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되었던 남북통일축구대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회담은 첫출발에서부터 온겨레의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간의 체육교류가 배세된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이며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은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측은 남북체육교류 실현과 단일팀 구성이 결코 별개의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하나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측으로서는 귀측이 제 41 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문제에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문제로 보면서 온겨레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준 통일축구대회를 정례화하는 문제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귀측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문제는 제 1 차회담에서 우리측이 내놓은 제안을 귀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경우 한 두차례의 회담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제 2 차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온겨레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주게 될 것이므로 상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지난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대로 제 2차 회담의 날짜를 내년 1월 15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1990년 12월 18일

남북체육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장 충 식

6. 남북적십자회담

가.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측 대표단장, 제 8차 실무대표접촉 호응 촉구 전통문

- 일 시 : 1990. 1. 18 (목) 15:01 ~ 15:12
- 통화자 : (남) 최 상 철 (북) 정 영 수
- 내 용

북남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영 대 귀하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해 12월 4일에 있었던 북남적십자 실무대표들의 단장접촉에서 우리는 교착상태에 있는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제 11차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90년 1월 22일에 제 8차 북남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귀측에 제기한 바 있으며 그 후 여러차례에 걸쳐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온 거래는 1990년대의 첫해인 운해를 북과 남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는데서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으로 혼어진 가족·친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적십자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민족의 통일일원에 부합되게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풀어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우리가 제기한 접촉 날짜가 막두해오고 있는 오늘까지 부당한 선제조건을 내세우면서 회담 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귀측이 우리가 가두 「꽃파는 처녀」 공연계획을 철회하지 않는한 집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온거레의 한결같은 임원에 배치되는 처사로서 어떤 이유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접촉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접촉마당에 나와 풀려하지 않고 집촉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성실한 대화자세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제 2차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제 11차 본회담 재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 8차 실무대표접촉에 하루빨리 응해 나올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남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박 영 수

1990년 1월 18일

나.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우리측 수석대표,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1.24 (수) 15:02 ~ 15:12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강 덕 순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실무대표접촉 대표단

단장 박 영 수 귀하

나는 귀하의 지난 1월 18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차원에서 추진되는 예술공연단 교환에서는 쌍방 공연내용이 적십자의 원칙, 예술단 교환의 취지, 쌍방

합의사항 정신 등에 부합됨으로써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
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써 우리측은 귀측이 「꽃파는 처녀」 등 「혁명가극」을 공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실무대표접촉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을 비롯한 온 겨레에게 참다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여러차례 지식한 바 있습니다.

나는 급번 귀하의 전화통지분이 이같은 우리측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표시라고 간주하면서, 제 2 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사업과 제 11 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쌍방 수석대표 개
별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제 2 차 수석대표 개별접촉은 오는 2월 5일(월)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
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막후접촉(비밀접촉)형식으로 갖는 것이 좋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실무대표접촉 대표단

수석대표 송 영 대

다.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측 대표단장, 혁명가극 공연 수락시 실무

대표접촉 재개 표명 전통문

- 일 시 : 1990. 1. 29 (월) 15:01 ~ 15:13
- 통화자 : (남) 최 상 철 (북) 온 태 광
- 내 용

북남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영 대 귀하

나는 귀하의 1월 24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귀측은 전화통지문에서 마치도 우리가 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계획을 철회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단장 개별접촉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계획을 철회한다고 말한 바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공개된 바와같이 우리는 지난 1월 18일 귀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가극 「꽃파는 처녀」는 쌍방 합의사항에도 전적으로 맞을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대절찬 속에 공연된 우리민족의 우수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귀측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면서 접촉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실무대표접촉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아전인수격으로 우리의 전화통지문 내용을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은 신의없는 태도일 뿐 아니라 교착상태에 있는 실무대표접촉을 전진시켜 나가려는 성실한 대화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진심으로 이 접촉을 빠른 시일 안에 결속하고 온 민족이 바라는 제2차 적십자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며 적십자 본회담을 재개하려 한다면 더 이상 공연종목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귀측이 「꽃파는 처녀」를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할 때 우리는 접촉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라도 귀측과 마주앉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북남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박 영 수

1990년 1월 29일

라. 우리측, 한적총재 명의 대북서한 전달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5. 4 (금) 10:04 ~ 10:07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강 덕 순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7일 (월)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5월 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마. 북측, 한적총재 명의 대북서한 접수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5. 7 (월) 10:02 ~ 10:0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귀하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7일(월)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5월 7일

**바. 북측, 제 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거부 및 혁명가극 공연수락 재촉
구 전통문**

- 일 시 : 1990.5.17 (목) 10:02 ~ 10:28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오늘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40년대, 50년대에 부모·처자와 갈라진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에 이른 오늘까지도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가슴아픈 현실을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측은 어떻게 하나 흩어진 겨레에게 혈육들과의 상봉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고 갈라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폭넓게 덜어주려는 숭고한 염원에서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적십자 본회담의 재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쌍방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발기하고, 상정된 문제들을 연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3차 실무대표접촉에서는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사업을 12월 8일에 실시하고 제 11차 적십자회담을 12월 15일에 재개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쌍방은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제 11차 적십자 본회담에 앞세워 진행할 것을 명백히 합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귀측이 아무런 문제로도 될 수 없는 우리의 예술공연 종목을 걸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무대표접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나섬으로써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은 물론 제 11차 본회담도 합의된 날짜에 재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귀측이 진심으로 적십자 본회담 재개에 관심이 있다면 쌍방이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을 적십자 본회담에 앞세우자고 합의한 조건에서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 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실무대표접촉이 다시 열려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이 순조롭게 실현되면 제 11차 적십자 본회담은 자연히 재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쌍방의 합의사항을 무시하면서 실무대표접촉 재개를 외면하고 사리에 맞지 않게 제 11차 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귀측이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은 물론 적십자 본회담 자체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측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 예술공연 종목을 걸고 실무대표접촉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받아들일 용단을 내리고 실무대표접촉에 응해 나오으로써 하루빨리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제 11차 적십자 본회담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온기레의 기대에 호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북과 남 사이에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 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올라있고 귀측도 이에 환영을 표시한 조건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로서는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만 표시한다면 실무대표접촉이든, 단장접촉이든, 대표개별접촉이든 접촉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때든지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제 11차 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는 실무대표접촉에 응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5월 17일

사. 우리측, 제 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9.13 (목) 15:14 ~ 15:20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우리 정부당국으로부터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당국이 각기 해당 적십자사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나는 이같은 합의가 헐육상봉을 갈망하는 1천만 이산가족들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겨레의 염원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믿으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는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이 제 11 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늦어도 금년 10 월 하순에 열리기를 기대하고 60 세이상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과 제 2 차 고향방문단 교환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귀하도 알다시피 남북이산가족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우리 적십자인들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적십자인들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는 제 11 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오는 10 월 하순에 평양에서 개최하는 문제와 제 2 차 고향방문단 교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 8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9 월 19 일(수) 오전 10 시 관문집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기를 세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 년 9 월 13 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아. 북측, 제 8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일자관련 회담 추후 통보 전
통문

○ 일 시 : 1990. 9. 17 (월) 16:03 ~ 16:10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김 경 일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귀하의 9월 13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문제와 제11차 적십자 본회담 재개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북남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계속할 것을 귀측에 여러차례 제기하였습니다.

나는 귀측이 우리의 거듭되는 제의에 반응을 보인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귀측의 9월 13일부 전화통지문에 대한 회답을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보내겠다는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17일

자. 우리측,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재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9. 19 (수) 15:07 ~ 15:20

○ 통화자 : (남) 박 환 수 (북) 김 경 일

○ 내 용

위원장 대리 이 상 호 귀하

귀하의 9월 17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혈육상봉을 갈망하는 1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하루속히 풀이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권고키로한 쌍방 정부당국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중단된 제 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9월 19일에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와같은 우리측 세의에 대해 앞으로 적당한 시기에 회답을 보내겠다고 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은 일일여삼추로 가족상봉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며 더욱이 생전에 가족들의 얼굴이라도 보고싶어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들은 민족명절인 금년 추석울 기하여 고향방문의 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절박성에 비추어 적십자 본회담과 제 2차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이 더이상 뒤로 미루어지서는 안되며 하루라도 빨리 성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제 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9월 24일(월)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다시 제의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9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차. 북측, 제 8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재개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0. 16 (화) 10:07 ~ 10:16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명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인도적 및 민족적 과제입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같이 지난해 쌍방은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가지고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을 교환하며 적십자 본회담을 재개하는데 기본적인 의견접근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이 아무런 문제로도 될 수 없는 우리측의 예술공연내용을 가지고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함으로써 근 1년동안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은 중단되고 따라서 제 2 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도 실현되지 못하고 적십자 본회담은 재개의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재개하려는 귀측의 태도에 유의하면서 중단상태에 있는 북남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11월 15일(목)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재개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0월 16일

카. 우리측, 제 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및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1. 5 (월) 10:02 ~ 10: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강 덕 순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제 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11월 15일에 개최하자는 귀하의 10월 16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나는 제 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의 조속한 실현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무대표접촉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제 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오는 11월 8일(목)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것을 제의합니다.

아울러 나는 제 8차 접촉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11월 7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실무대표 수석대표간의 비공식 단독접촉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0년 11월 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타. 북측, 제 8 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및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1. 6 (화) 13:33 ~ 13:4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이 충 혁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귀하의 11월 5일부 회답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중단되었던 북한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재개할 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온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으로 흩어진 겨레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며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절박하고도 숭고한 인도적 및 민족적과제를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입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는 11월 7일과 8일에 각각 북한적십자 실무대표 단장과 대표단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파견할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1월 6일

7. 한필성·한필화 상봉 관련

가. 한적총재 명의 대북서한(한필화 앞 한필성씨 편지 동봉)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대북서한 전달 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3. 26 (월) 15 : 04 ~ 15 : 08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28일 (수)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서한을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3월 2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2) 북측, 대북서한 접수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3. 28 (수) 10 : 07 ~ 10 : 09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귀하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3월 28일 (수)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년 3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나. 북적위원장 대리 명의 대남편지(한필화 편지 동봉)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4. 18 (수) 10 : 04 ~ 10 : 07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귀하에게 보내는 나의 편지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체육인 한필화가 그의 오빠인 한필성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19일 (목)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내니 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4월 18일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4. 19 (목) 10 : 05 ~ 10 : 08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김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4월 19일(목) 오후 3시 2
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년 4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다. 북측, 한필성씨 평양방문시 신변안전 보장 전통문

- 일 시 : 1990. 4. 20 (금) 10 : 00 ~ 10 : 05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김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우리 공화국 해당기관에서 남조선에 있는 한필성선생과 그의 가족들이 40년 동안 헤어졌던 어머니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경우 그를 환영할 것이며 그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고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임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4월 20일

라. 우리측, 한필성씨 부부 평양방문계획 통보 및 무사귀환조치 요구 전
통문

- 일 시 : 1990. 4. 30 (월) 10 : 03 ~ 10 : 15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하가 1990년 4월 20일 보내온 전화통지문에 유의하면서 친족상봉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려는 한필성씨의 희망을 귀하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한필성씨는 그의 처 흥애자(48세)씨를 동반하고 판문점을 통해 1990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7박8일) 평양을 방문하여 그의 어머니 최원화씨, 남포에 있는 동생 한필환씨, 태성에 사는 누나 한필희씨 등과 상

봉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필성씨는 귀측의 책임있는 기관에서 자신과 그의 처에 대한 안전귀환을 보장할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한필성씨의 희망을 전하면서 귀 서십자회가 귀측당국과 한필화씨에게 연락하여 한필성씨의 친족상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줄 것과 또한 한필성씨 부부가 평양에서 그들의 친족들과 상봉하고 예정대로 5월 22일 서울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990년 4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마. 북측, 한필성씨 부부 무사귀환보장 거부 전통문

- 일 시 : 1990. 5. 9 (수) 15 : 06 ~ 15 : 23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귀측이 한필성 선생의 평양방문을 승인한 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부당한 처사로 말미암아 북남 사이에 제 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사업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우리측이 특별로 한필성 선생과 그의 가족들을 평양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우리의 인도주의

적 입장과 아량의 표시로 됩니다.

한필성 선생과 그의 가족들의 평양방문을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부담이나 불편도 없이 실현시켜 주기 위하여 나는 귀측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지난번 일본 『삿바로』에서 있는 한필화 남매의 상봉때에 귀측이 한필성 선생의 몸에 도청마이크와 녹음기를 달아 놓았던 처사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유린한 극히 비인도적인 비열한 행위로써 내외의 비난이 컸던 만큼 귀측은 마땅히 이에 대해 온민족 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다시는 그러한 인권말살행위를 하지 않을데 대해 확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귀측 언론기관에서 우리가 한필성 선생 부부의 무사귀환을 방해한다느니 그들의 평양방문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느니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온당치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필성 선생의 평양방문을 달가와 하지 않는 귀측당국의 불순한 기도를 드러내 놓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둘째로, 한필성 선생의 노모는 아들이 이번 기회에 일가족을 모두 데리고 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귀측이 이를 외면하고 한필성 선생 부부만을 보내려 하는데는 또다른 불순한 기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한필성 선생의 어머니가 지금도 아들이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올 것과 평양에 오면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귀 적십자사가 연로한 어머니의 소원대로 아들과 그의 일가족을 모두 평양에 보내줄 것을 다시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한필성 선생과 그의 가족들의 평양방문 날짜는 지금 한필화가

외국출장 중이므로 그의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여 5월 21일 (월)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귀측에 통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나는 귀측이 한필성 선생 부부의 무사귀환을 언급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측으로서는 한필성 선생과 그의 가족들의 평양 방문기간 신변안전을 해당기관에서 철저히 담보하도록 하겠지만, 그들이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어머니와 한필성 선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귀측의 조속한 회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5월 9일

바. 북적위원장 대리 앞 한필성씨 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5. 15 (화) 15 : 07 ~ 15 : 10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한필성씨의 요청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7일 (목)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
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5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2) 북측, 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5. 17 (목) 10 : 28 ~ 10 : 30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한필성선생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7일 (목) 오후 3
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5월 17일

사. 한적총재 앞 한필화 편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5. 22 (화) 10 : 10 ~ 10 : 13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한필화의 요청에 따라 귀하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5월 23일(수) 오후 3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 보내니 귀측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5월 22일

(2) 우리측, 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5. 23 (수) 10 : 02 ~ 10 : 05
- 통화자 : (남)석 명 학 (북)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23일(수) 오후 3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년 5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8.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및 범민족통일음악회

가. 범민족통일음악회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범민족통일음악회 초청 대남편지 전달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9. 18 (화) 16 : 05 ~ 16 : 12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이 명 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범민족통일음악회』 북측준비위원회가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교수 황병기 선생을 비롯한 17명의 인사들을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범민족 통일음악회』에 초청하는 편지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 보내기 위하여 9월 19일 (수) 오후 3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18일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9. 19 (수) 10 : 07 ~ 10 : 10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측이 우리측에 전달하겠다는 편지를 접수하기 위해 1990년 9월 19일(수)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입니다.

1990년 9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3) 우리측, 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음악인 체류일정 협의관련 쌍방 연락관 접촉 제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0. 5 (금) 14 : 10 ~ 14 : 15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오는 10월 18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참가하는 우리측 음악인 및 수행기자 17명의 요청에 의하여 이들의 귀측지역 방문기간중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문제를 포함한 체류일정과 판문점 통과절차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월 8일(월)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

회 회의실에서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합니다.

1990년 10월 5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4) 북측, 쌍방 연락관 접촉 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0. 6 (토) 10 : 12 ~ 10 : 15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10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범민족통일음악회』에 남측 음악가들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8일(월) 오후 3시 우리측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0월 6일

나.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 관련 쌍방 전통문

(1) 우리측,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초청 대북서한 전달 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11. 12 (월) 15 : 16 ~ 15 : 22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이 광 철
- 내 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병기씨의 요청에 따라 조선음악가 동맹 중앙위원회 김원간 위원장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14일 (수) 오전 10시 2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보낼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갈 귀측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2) 북측, 대북서한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1. 13 (화) 15 : 10 ~ 15 : 14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전 용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김원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보내는 서울 전통음악연주단 황병기 대표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14일 (수) 오전 10시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1월 13일

(3) 북측,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참가 관련 예비접촉 제의 대남편지 전달
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11. 20 (화) 10 : 15 ~ 10 : 18
- 통화자 : (남) 김 기 응 (북) 김 영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김원균 위원장이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황병기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를 넘겨주기 위하여 1990년 11월 21일 (수) 오후 3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내보낼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1월 20일

(4)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동의 전통문

- 일 시 : 1990. 11. 21 (수) 10 : 10 ~ 10 : 15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김 명 수

○ 내 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21일(수) 오후 3시 2
명의 연락관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1990년 11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5)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예비접촉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11. 24 (토) 10 : 01 ~ 10 : 14

○ 통화자 : (남)석 명 학 (북)이 광 철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서울전통음악연주단 황병기 대표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선화통지문
을 보내니 이를 귀측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김원관 위원장에게 전달
하여 주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 원 균 선생

선생의 1990년 11월 21일자 회신은 반갑게 받았습니다.

조국분단 45년만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의 열망으로 드디어 문화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이 뜻깊은 해를 보내면서, 남과 북의 음악가들이 서울에 모여서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를 펼치자는 나의 제안에 선생께서 찬동하시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음악회가 우리 겨레 모두가 통일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더욱 활발한 민족문화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의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접촉은 “양측에서 각기 위임한 연락관들”로 하여금 진행시키는 것이 편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음악회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귀측에서 참가하는 연주단의 명단과 인적사항과 연주곡목을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어 음악회 준비가 순조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1월 24일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 병 기 .

9. 기 타

가. IPU 총회 남북단일대표단 구성·참가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한 의회그룹 위원장, 제 84 차 IPU 총회 관련 대남편지 전달
예고 전통문

- 일 시 : 1990. 1. 15 (월) 10 : 09 ~ 10 : 16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광 철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룹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귀측 의회그룹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1990년 1월 15일

대한민국 의회그룹 위원장 김 재 순 귀하

나는 올해 가을 열리게 되는 국제의회동맹 제 84 차 총회와 관련한 우
리의 제안을 담은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오는 1월 17일(수)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원을 파견할 것입니다.

귀측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룹

위원장 양 형 섭

1990년 1월 15일

(2) IPU 대한민국의원단 회장, 대남편지 접수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1. 16 (화) 15 : 22 ~ 15 : 27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정 영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귀하

나는 국제의회연맹 대한민국 의원단 회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국제의회연맹 의원단 회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1월 16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국제의회연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원단

회장 양 형 섭 귀하

나는 1월 15일자 귀하의 전화통지문과 관련, 귀하의 편지를 전달받기 위해 1월 17일 (수)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연락관을 파견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년 1월 16일

국제의회연맹 대한민국 의원단

회장 김 재 순

나. 「연·고 민족해방제」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한 조선학생위 위원장, 연대·고대 총학생회앞 편지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9.24 (월) 10 : 03 ~ 10 : 1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용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학생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연
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24일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권 오 중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윤 진 호

나는 『조선학생위원회』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9월 24일 (월) 오후 3시 『조선학생위원회』 대표 2명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귀 총학생회들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 현 덕

1990년 9월 24일

(2) 우리측, 대남편지 접수관련 적십자 연락관 파견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9. 24 (월) 14 : 08 ~ 14 : 12
- 통화자 : (남) 석 명 학 (북) 김 응 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측의 9월 24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귀측의 편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9월 24일 (월) 오후 3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2명의 우리측 적십자 연락관을 내보낼 것입니다.

1990년 9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3) 북측, 대남편지 전달 거부 및 공개 표명 전통문

- 일 시 : 1990. 9. 24 (월) 14 : 55 ~ 15 : 00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김 응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귀측의 9월 24일부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조선학생위원회』에 알아본 데 의하면 자기들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가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대표가 아닌 귀측 적십자 연락관이 나온다면 편지를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편지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990년 9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다. 「통일학술제」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한 조선학생위, 「통일학술제」 관련 남북학생실무회담 참가 통보
전통문

- 일 시 : 1990. 10. 23 (화) 14 : 02 ~ 14 : 17

○ 통화자 : (남)이 명 수 (북)김 명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조선학생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남조선의 경희대학교·한양대학교·외국어대학교로 구성된 『통일학술제 공동추진위원회』에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전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0월 23일

남조선의 경희대학교·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들로 구성된

『통일학술제 공동추진위원회』앞

우리는 남조선의 경희대학교·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들로 구성된 『통일학술제 공동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학술제』에 우리 대학생들을 초청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24일(수) 오전 11시에 관문점에서 북남학생실무회담을 가질 데 대하여 다시금 제의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가지기로 하였던 북남학생실무회담이 실현되지 못하여 아픈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던 북녘의 우리 대학생들은 귀 위원회가 이번에 민족적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우리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기 위해 관문점 회담장으로 다시 나오기로 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귀 위원회의 제의에 전적인 찬동을 표시하면서 오는 10월 24일 오전 11시 5명으로 구성된 실무회담 대표단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낼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통일학술제』 행사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대축제로 거행하기 위한 문제들과, 우리 북반부 대학생들의 축전참가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조 선 학 생 위 원 회

1990년 10월 23일

평 양

(2) 우리측, 『통일학술제』 관련 남북학생집축 승인신청 불허 통보 전
통문

- 일 시 : 1990. 10. 24 (수) 10 : 05 ~ 10 : 11
- 통화자 : (남) 박 환 수 (북) 전 용 호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측의 10월 23일자 전화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당국은 우리측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북측 학생들과 함께 개최하려 하는 학술토론회가 상호이해와 단합을

이북하는데 유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진행중인 남북대화나 여타 부분의 남북교류추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접촉 승인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당국의 요청에 따라 상기 사실을 귀측에 통보하니 이를 귀측 조선학생위원회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1990년 10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라. 「범민족통일교육자대회」 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 위원장 명의 편지 전달 관련 전통문

- 일 시 : 1990. 12. 12 (수) 11 : 05 ~ 11 : 10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김 명 수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요청에 따라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최금순 위원장이 귀측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운영규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14일 (금) 오후 3시에 2명의 연락원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내보내니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2월 12일

(2) 우리측, 『전교조』앞 편지 접수 거부 전통문

- 일 시 : 1990. 12. 13 (목) 15 : 02 ~ 15 : 07
- 통화자 : (남) 김 기 용 (북) 김 명 수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나는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편지를 교환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의거한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12월 12일자 전화통지문에서 귀측이 전달을 요구한 편지를 접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1990년 1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마. 북한 수산위원회 위원장, 내무부장관 앞 실종선박 송환 협조요청 전통문

- 일 시 : 1990. 12. 29 (토) 09 : 17 ~ 09 : 29
- 통화자 : (남) 이 명 수 (북) 전 응 호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전화통지문을 보내니 이를 귀측 내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12월 29일

대 한 민 국

내무부장관 안 응 모 귀하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아미포에 정박하고 있던 강령 수산사업소 부업선 『므-안(9818)』호 (30톤급 철선)가 1990년 12월 25일 새벽 선원들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풍랑으로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바람방향을 고려할 때 배는 남쪽 방향으로 표류되어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귀하가 만일 배가 귀측 수역에 들어갔으면 우리측에 돌려 보내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위원회

위원장 최 복 연

1990년 12월 29일

바. 수해관련 쌍방 전통문

(1) 북측, 수해 관련 위문 전통문

- 일 시 : 1990. 9. 13 (목) 10 : 08 ~ 10 : 11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강 덕 순
- 내 용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귀하

나는 최근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서울과 경기도, 남강원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수재민들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부터 한물 피해를 입은 모든 수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문을 보내며 아울러 하루빨리 한물 피해가 가셔지고 수재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1990년 9월 13일

(2) 우리측, 수해 관련 답례 전통문

- 일 시 : 1990. 9. 13 (목) 15 : 12 ~ 15 : 14
- 통화자 : (남) 유 종 열 (북) 김 경 일
- 내 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대리 이 성 호 귀하

귀하의 9월 13일자 전통문을 잘 받았습니다.

나는 이번 서울지역 등 중부지방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위로의 뜻을 표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0년 9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상 협

| | |
|------------------------|------------------------|
| 서기 1991년 1월 15일 40부 발간 | |
| 발간업체명 | 웃고문화사 267-3956-9795 |
| 대표자 | 윤홍규 |
| 인가근거 | 내삼 510-41875(81.10.2) |
| 참여자 | 남북대화사무국 |
| | 이명수 |